

순천향 설립자 서석조 박사 서거 20주기 추모 특집

환자를 사랑한 닥터 앙트레프레너



순천향 설립자 향설 서석조 박사 서거 20주기를 맞아 그가 대한민국 의학계에 미친 업적과 철학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진료, 연구, 교육을 위해 순천향대학교를 설립한 서석조 박사는 이시 대 진정한 '앙트레프레너'입니다.

*앙트레프레너: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을 뜻함.

발행일 2019년 12월 5일
 발행인 황경호(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편집위원 이미중, 한세형, 서태원, 유채민
 연락처 02-709-9120 www.schmc.ac.kr
 주소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59
 기획·편집·디자인 피앤플러스 02-2269-5689
 인쇄 아트앰파트너스(주)

CONTENTS

2

SPECIAL

순천향 설립자 향설 서석조 박사 추모 특집



8

ISSUE

서울병원 진료협력센터, 협력 병·의원의 밤

10

ISSUE

부천병원, 경인 지역 '로봇수술' 메카로 우뚝!



12

ISSUE

천안병원, 환자안전의 달 행사 개최

14

ISSUE

구미병원, 지역민을 위한 아낌없는 의료봉사

SCH NETWORK

“하늘 뜻 받들어 인간 사랑을 실천합니다”



SCH SEOUL HOSPITAL
www.schmc.ac.kr/seoul
 02-709-9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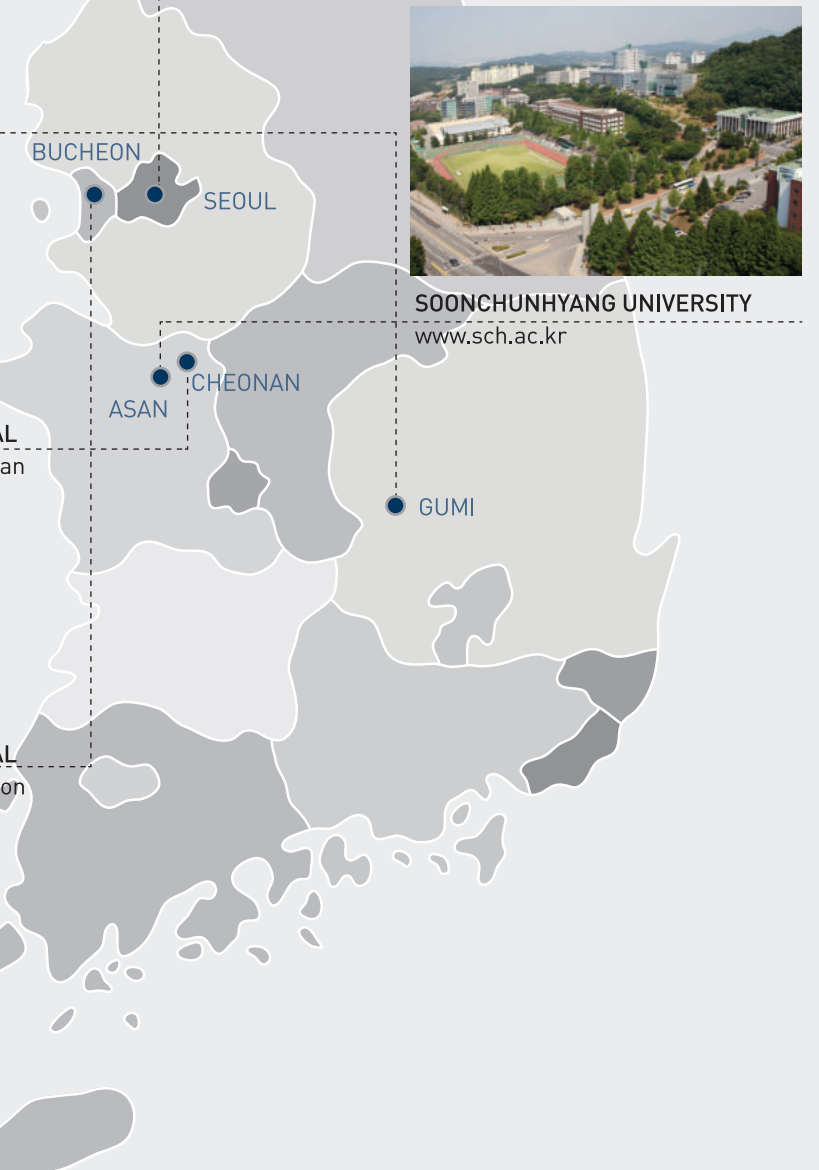
SCH GUMI HOSPITAL
www.schmc.ac.kr/gumi
 054-468-9114



SCH CHEONAN HOSPITAL
www.schmc.ac.kr/cheonan
 041-570-2114



SCH BUCHEON HOSPITAL
www.schmc.ac.kr/bucheon
 032-621-5114





16



18



22



28

16

LOVE

천안병원, 백지은 환자와 김수아 교수의 20년 이야기

18

VISIT

서울병원 '간이식클리닉'

22

DOCTOR

구미병원 성형외과 정현교 교수

26

WITH SCH

기부자, 밀알회 감경식 회장

28

KNOWLEDGE

임신과 바이러스 감염

30

KNOWLEDGE

성인 주의력결핍증(ADHD)

32

KNOWLEDGE

젊은 여성 공격하는 희귀난치병들

34

KNOWLEDGE

아토피질환 치료, 증상별 해법 달리해야

36

EQUIPMENT

(SPECT - GE Healthcare) 단일광자 단층촬영기

38

ALUMNUS

동문탐방_ 정호준(22기)·서준원(23기)

'수' 재활의학과의원 원장

40

BOOKS

「에이트」

42

NEWS

48

서석조 박사 기념사업회

순천향 설립자
향설 서석조 박사의 재발견

廣濟仁術 廣施育英 광제인술로 광시육영 이론 위대한 개척자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과 순천향대학교 설립자 향설 서석조 박사 서거 20주기를 맞아
그가 대한민국 의학계에 미친 업적과 철학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 01 미래를 예측한 의학의 '앙트레프레너'
- 02 Historia
- 03 한국 의학계 1호 기록을 남기다
- 04 사진으로 추억하다

향설 서석조 박사, 미래를 예측한 의학의 '앙트레프레너'

광제인술로 광시육영 이룬다

서 박사는 순천향병원을 설립하여 최고의 의술과 합리적 경영을 바탕으로 현재 순천향대학 부속병원
의 기틀을 마련했고 의료 사각지대인 낙후 지역민들의 인간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해 천안, 부천, 구미
등 전국 네 곳에 종합병원을 설립해 광제인술을 펼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다.

서석조 박사는 순천향병원에서 먼 미래를 내다보며 더 나은 진료와 연구, 교육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
인 순천향대학교를 설립하여 후학양성에도 힘쓴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가슴 따뜻한 신경내과 분야의 최고 권위자

앞서 말했듯 향설 서석조 박사는 인술로 인간을 이롭게 하고 널리 구제한다는 광제인술을 평생 철학으
로 삼았다. 이러한 신념과 철학으로 1974년 순천향종합병원을 개원하고 순천향의과대학을 개교했다.
서석조 박사는 대학교육의 실용성과 함께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 주목한 교육자이자 개인적 영달이라
는 작은 꿈을 버리고 체계적 인재양성을 통한 사회적 기여라는 큰 꿈을 선택한 실천적 지식인이었다.
신경내과 분야의 최고 권위자였고 뇌졸중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의학자이자, 환자들이 신음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병을 앓는 것처럼 가슴 아파 했던 가슴 따뜻한 의사였다. 하늘의 순리에 따라 인간을 치료
하고 고향의 눈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본 향설 서석조 박사를 추모하며 다시 바라본다.

후학 양성으로 창의적 미래 설계와 인간미를 더한 환자사랑

향설 서석조 박사가 순천향병원 개원 후에 대학을 설립한 이유는 환자 진료 외에도 미래 의학을 책임질
전문의 양성의 첫 걸음인 학생 교육과 연구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서석조 박사는 평소
진료, 연구, 교육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말을 했다. 특히 환자의 이익이 무엇보다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환자를 돌보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진정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이다.

*앙트레프레너: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을 뜻함.



향설 서석조 박사, Historia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다

향설 서석조 박사는 1921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일본의 경도부립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미국 코넬대학(1949)에서 국내 최초로 신경내과학을 전공, 뇌척수신경계통의 질환을 연구한 한국 의학계의 선구자이다.

서 박사가 미국 유학을 시작한 이후 조국은 참담한 6.25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서 박사는 지식인으로서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장 귀국해서 도와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도 있었고, 또 동란의 상처로 신음하는 동포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미 시작한 의학공부를 마치고 귀국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민 끝에 후자를 선택했다. 만일 성급하게 귀국했다면 당시까지만 해도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신경내과 분야의 의학연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신경내과 분야의 개척자... 뇌졸중이란 의학용어를 최초 사용

서석조 박사는 미국서 돌아온 후 약관 32세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주임교수를 역임했다. 이어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 주임교수를 역임하면서 가톨릭의과대학 내과학교실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1호 의학박사이기도 하다.

서 박사는 우리나라 신경내과 분야의 개척자이다. 1962년 가을에 열린 내과학회에서는 뇌졸중에 대한 보고를 하여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금은 널리 쓰이고 있는 뇌졸중이란 의학용어를 최초로 만들었다. 1971년 2월 25일에는 대한신경내과 학회를 창설하고 초대회장에 취임했다.



한국의 '메이요클리닉'을 꿈꾸다... 우리나라 의료법인 1호 개원, 영친왕 주치의

서석조 박사의 소원은 늘 미국의 메이요클리닉과 같은 좋은 병원을 우리나라에 세우는 것이었다. 순천향병원은 그 꿈의 시작이었다. 순천향병원은 1974년 우리나라 의료법인 1호로 개원했다. 순천향이라는 이름은 인간은 하늘의 이치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신념에서 유래한 것이다. 서박사는 항상 '환자는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고치는 것이다. 의사는 단지 이러한 하늘의 뜻을 돕는 사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서 박사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인 영친왕을 일본에서 직접 모셔와 영면하실 때까지 주치의로서 극진히 모셨다. 그 당시 일본 정부는 영친왕의 상태가 위중하여 모셔갈 수 없다고 강력히 반대했으나 서석조 박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한국으로 모셔올 수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개업의가 설립한 '순천향의대'

서석조 박사는 드디어 1978년에 학교법인 동은학원을 설립하고 순천향의과대학의 문을 여는 한편, 순천향중앙의료원을 설립했다. 1979년에는 순천향 구미병원을 개원했고, 1982년에 순천향 천안병원을 개원했다. 1990년에는 순천향대학이 종합대학인 순천향대학교로 승격했다.

2001년도에는 순천향 부천병원을 개원했다. 서석조 박사는 한 사람의 개업의로서 한국 최초로 의과대학을 설립한 강한 개척정신과 진취적인 면모를 갖춘 혜안을 갖고 있다. 한국의 사립대학교 의료원 제도 정립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의학교육 뿐만 아니라 의료 행정가로서 우리나라 의계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다. 의사의 삶이란 나 자신보다 남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향설 서석조 박사는 의사이자 의학 교육자로 광제인술과 광시육영의 뜻을 몸소 실천하다 1999년 12월 19일 79세를 일기로 영면하였다.

향설 서석조 박사, 한국 의학계 1호 기록 남기다

01 최연소 의과대학 교수

약관 32세에 연세대학교 내과 교수와 주임교수 역임. 이어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 주임교수를 역임했다. 특히 가톨릭의과대학의 내과학교실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02 신경내과 분야 개척자

1960년대 초부터 독립적인 신경과학회 창립과 전문의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결과 1971년 2월 25일 대한신경내과학회를 창설, 초대회장에 취임했다.

03 '뇌졸중' 의학용어 세계 최초사용

1962년 가을에 열린 내과학회에서 '뇌졸중'에 대한 보고를 하여 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에는 CVA(뇌혈관손상증) 또는 한의학 용어인 중풍으로 불렸는데, 서 박사는 '뇌가 무엇인가에 갑자기 언어맞는다'는 뜻으로 가장 우리말에 가까운 '뇌졸중'이라는 말을 고안해 냈다. 동물실험을 통해 막힌 뇌의 혈관을 뚫고 치료 방법도 도출해 내는 등 관련 논문도 수십 편 발표했다.

04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1호 의학박사

'쥐에 미치는 쌀밥의 효과'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주식인 쌀이 성장과 내분비계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1호 박사로 등재되었다. 이밖에 '인삼이 내분비계통 특히 당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관련 논문만 해도 수십 편에 이르는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인용되고 있다.



05 대한민국 제1호 의료법인 '순천향병원' 설립

1974년 개원한 순천향병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법인. 이어서 학교법인 동은학원을 설립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1978년 순천향의과대학의 문을 여었다. 병원과 의과대학의 두 날개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순천향병원은 1979년에 구미에, 1982년에 천안에, 2001년에 부천에 각각 순천향대병원을 설립해 전국 의료네트워크를 구축했다.

06 의사가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 1호 의과대학

1978년 설립한 순천향의과대학은 우리나라 최초로 개인 의사가 설립한 의과대학으로 당시 척박한 충청남도 온양시 신창면 읍내리 산53-1번지에 1978년 1월 14일에 허가를 받았다. 당시 설립 목적은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기여 투철한 지도적 의학도의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이라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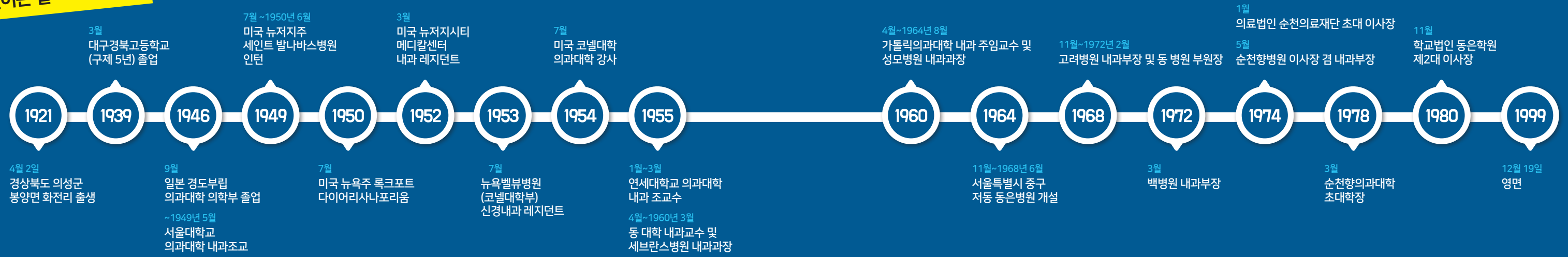
07 우리나라 최초 CPC (clinico-pathological conference) 도입

서석조 박사는 미국에서 돌아온 후 연세대학교병원에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벨뷰병원에서 실행했던 임상병리검토회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CPC는 임상경과와 치료내용 외에 병리해부를 통해 진단이 타당한가를 검토하는 회의이다.

향설 서석조 박사, 사진으로 추억하다



향설 서석조 박사가 걸어온 길



지역 의료기관과 소통하는 ‘협력 병·의원의 밤’

서울병원 진료협력센터, 최상의 진료협력서비스 제공

전국 1,167개 협력병·의원에서 진료의뢰 된 환자는 진료대기 시간 단축과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우며, 의뢰된 환자의 진료결과 회신은 물론 치료가 종료된 시점에서는 다시 의뢰한 병·의원으로 전원 및 회송한다.



순천향대 서울병원(병원장 서유성)은 11월 11일 그랜드엠버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8회 협력병·의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협력병·의원과 탄탄한 네트워크 형성과 신속하고 효과적인 환자의뢰 및 전원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등록 및 저녁식사, 의학강좌, 특강 순으로 진행한 행사에는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 50명과 협력병·의원 원장과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서유성 원장, “소통과 화합 넓히는 계기”... 협력병·의원, “더 든든한 버팀목 되어 달라”

순천향대 서울병원이 위치한 용산구를 비롯해 중구, 성동구, 강남구, 서초구의사회 회장 등 주변 지역 의사회장들이 대거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었다.

장재철 진료협력센터장은 “평소 서류나 전화상으로만 대하던 분들을 직접 만나게 돼서 반갑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소통과 화합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유성 병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병원이 올 해 의료 질 평가에서 1-가로 최고 등급을 받아 상위 2%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42개를 포함한 전국 337대상 중에서 7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며 “이러한 대기록은 협력병·의원에서 환자의뢰를 비롯한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 준 결과”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각 구의사회 회장들은 “응급환자나 중증환자를 대학병원으로 보내야 할 때가 많은데 언제든 편하게 순천향대서울병원에서 받아 주셔서 감사하다.”며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다양한 의학강좌와 외부 특강

개회식에 이은 의학강좌는 ‘순천향의 두 번째 사이버나이프’(장아람 방사선종양학과교수), ‘순천향 The best choice for liver transplantation(김경식 외과 교수), ‘행위 중독의 진단과 치료(도박, 쇼핑, 인터넷 중독 등 -황재욱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등 세 개의 주제를 다뤘다.

장아람 교수는 “2008년 국내에서 7번째로 사이버나이프를 도입해 성공적인 치료를 시행해왔다.”며 “다음 달 부터는 첨단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최신형 사이버나이프를 새롭게 운영한다.”며 방사선 치료에 많은 관심과 상담을 부탁했다.

김경식 교수는 “올해 3월부터 순천향대서울병원에 와서 여덟 번의 간이식을 안전하게 시행하고 있다. 특히, 모든 공여자의 수술을 복강경으로 집도해 빠른 회복과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협진에 참여하는 의료진들이 자발적, 적극적으로 환자를 돌봐 주는 것이 순천향 최고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특강은 한국 마라톤의 영웅 이봉주 마라토너의 초청 강연으로 꾸며졌다. 이봉주 선수는 “지금까지 뛴 거리가 지구를 네, 다섯 번은 돌은 거

리와 같을 것”이라며 “꾸준함과 원칙을 지키는 지구력으로 단점을 극복하고 한국 신기록도 세우고, 여러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매년 협력병·의원 행정 책임자 초청 행정포럼 개최로 최신 정보 공유

전국 1,167개 병·의원과 협력을 맺고 있는 순천향대 서울병원 진료협력센터는 진료의뢰 된 환자의 진료대기 시간 단축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돕는다. 또한 의뢰된 환자의 진료결과를 회신하며, 치료가 종료된 시점에서는 다시 의뢰한 병·의원으로 전원 및 회송한다. 입원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하는 업무도 담당 하고 있다. 센터는 2003년부터 진료협력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명숙 팀장과 내외과 임상 경험을 모두 경험한 10년 차 이상의 베테랑 장연화, 최세영 간호사가 한 팀이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외에도 2008년부터 시작한 용산구의사회 연수강좌를 연4회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협력병원 행정 책임자를 초청해 행정포럼을 개최해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 ①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10월 28일 1회의실에서 '다빈치 Xi 로봇수술 1000례 달성 기념행사'를 가졌다.
- ② 순천향대 부천병원 로봇수술센터 의료진
- ③ 순천향대 부천병원 로봇수술센터 상재홍 산부인과 교수가 10월 22일 다빈치 Xi 로봇수술 1000례를 시행하고 있다.



경인 지역 '로봇수술' 메카로 우뚝!

순천향대 부천병원, 다빈치 Xi 로봇수술 1000례 돌파...암 환자 치료 비중 높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로봇수술센터(센터장 김영호)가 10월 22일 다빈치 Xi 로봇수술 1000례를 돌파하는 등, 경인 지역 로봇수술 메카로 자리 잡았다. 로봇수술 1000례 돌파는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2017년 4월 경인 지역 최초로 4세대 로봇수술기 다빈치 Xi를 도입해 2년 7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도입 초기부터 수술 건수가 월 30여 건씩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여 국내 최단기간 100례 돌파(3개월), 200례 돌파(7개월) 등, 연이어 관련 기록을 경신해 의료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3D 고해상도 카메라와 관절 팔 이용 고난도 수술 척척

치료 성과 및 의료진 실력도 뛰어나다. 비뇨의학과와 이비인후과 수술 환자의 암 환자 비중은 80%, 외과 수술 환자의 암 환자 비중은 60%에 달해 중증 환자 치료에 기여하고 있다.

2018년 12월에는 이상욱 비뇨의학과 교수가 경인 지역 최초로 로봇 양측성 신장암 동시 절제술에 성공하는 등 고난도 로봇수술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로봇수술은 몸속 좁은 공간의 암도 3D 고해상도 카메라와 관절 팔을 이용해 정교하게 절제할 수 있으며, 흉터가 작고 환자 회복도 빠르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로봇수술센터는 대장암, 직장암, 위암, 전립선암, 자궁암, 신장암, 신우요관암 등 각종 암 수술을 비롯해 담낭, 갑상샘, 자궁근종 절제술, 자궁부속기 수술 등에 로봇수술을 적용하고 있다.

경인지역 최초 다빈치 Xi 로봇수술 1000례 돌파 쾌거

김영호 순천향대 부천병원 로봇수술센터장은 “로봇수술기 도입 전부터 로봇정밀내시경수술연구회를 운영하며 만반의 준비를 한 덕분에 단기간에 1000례를 돌파하는 등, 경인 지역을 대표하는 로봇수술센터로 우뚝 섰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로봇수술센터가 되기 위해 새로운 수술법 연구 및 적용 질환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2월에는 로봇수술 1000례를

기념해 심포지엄을 열고, 그동안 우리 센터가 축적한 노하우와 수술 성과를 다른 병원 의료진들과 나눠 지역 의료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10월 28일 1회의실에서 '다빈치 Xi 로봇수술 1000례 달성 기념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황경호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장, 신웅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 김영호 순천향대 부천병원 로봇수술센터장을 비롯해 비뇨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로봇수술 의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호 센터장이 로봇수술 현황을 발표했다.

의료진, 수술법 연구로 지역의료 발전위해 역할 다할 것

로봇수술 현황 분석 결과, 수술 건수는 산부인과가 492건으로 제일 많았다. 상처에 민감한 여성들이 수술 흉터가 작게 남는 로봇수술을 많이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수술 건수는 비뇨의학과가 304건, 외과가 152건으로 뒤를 이었다. 황경호 중앙의료원장은 “다빈치 Xi 로봇수술 1000례 돌파를 축하한다. 로봇수술 후발 주자로 출발해 단기간에 지역 의료계를 선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그동안 모든 로봇수술 의료진과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다. 앞으로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로봇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기사](#)

빈틈없는 환자안전에 전 교직원 올인!

순천향대 천안병원, 환자안전의 달 행사 개최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안전에 쏟아 붓는 열정은 실로 대단하다. 경영진부터 솔선수범.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병원 곳곳을 누비며 안전의 빈틈을 찾아내고 현장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10년을 이어오는 천안병원의 강력한 ‘환자안전라운드’다. 화재예방 노력도 남다르다. 전국 종합병원 최초로 병원 전 구역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지역사회 안전에도 통 큰 노력을 기울인다. 혹시 모를 감염병 발병과 대형 사고발생에 대비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자체모의훈련을 매년 수차례 거듭한다. 그럼에도 안전에 빈틈이 생길까 우려하는 천안병원은 아예 10월을 ‘환자안전의 달’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로 교직원은 물론 환자들의 안전 불감증을 제거 노력하고 있다. 올해 10월 펼쳐진 환자안전의 달 행사를 살짝 들여다본다.



‘100분 힐링 토크콘서트’ 개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발전방안 모색

10월 28일 오후 병원 강당 송원홀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100분 힐링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100분 힐링 토크콘서트’는 보다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교직원 100명과 100분 동안 환자안전과 올바른 의사소통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진행은 전설 QI실장(산부인과 교수)이 맡았고, 진료교수, 전공의, 인턴, 간호사, 의료기사, 사무원 등 다양한 직종을 대표하는 8명의 교직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들은 낙상사고, 환자확인오류, 전산장애, 시설문제 등 근무 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와 타 직종 교직원과의 갈등 경험을 공유했으며, 객석의 교직원들과 함께 즉석에서 개선방안들을 모색했다. 전설 실장은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만큼 무엇보다 소통이 원활해야 안전한 병원이 될 수 있다”면서,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발전의 길을 모색해 본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퀴즈이벤트... 잘못된 안전 지식 바로잡기

10월 23일 환자쉼터인 향설송원에서 퀴즈이벤트를 열어 환자들의 안전인식을 높였다. 환자안전의 달 행사 중 하나인 퀴즈이벤트는 환자 안전 관련 문제가 적힌 OX 패널에 스티커를 붙이며 문제를 푸는 것. 문제는 낙상예방, 환자이중확인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환자와 병원 직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성됐다. 이벤트 결과 환자 중 상당수는 아직도 잘못된 안전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QI(의료질향상)팀 소속 교직원들은 오답을 붙이는 환자들에게는 즉석에서 간단한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환자확인 및 낙상예방 캠페인

10월 8일 ‘환자확인 및 낙상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병동 의료진에게는 ‘정확한 환자확인’에 대한 경각심과 실천의지를 높이고, 입원환자들에게는 낙상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10월 15일과 22일에도 두 차례 더 진행됐다. 

Mini Interview

대한위장관외과학회 창립,
초대회장에 이문수 순천향대 천안병원장



대한위장관외과학회가 10월 12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 초대회장에 이문수 순천향대 천안병원장이 추대됐다.

이문수 초대회장은 대한위장관외과학회 창립에 대해 “다양한 세대의 공감과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동안 위장관외과 연관 학술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던 여러 학회들과 다양한 연구회 소속 위장관외과 의사들의 대통합을 이루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집단지성의 창의적 사고를 적극 반영하여 위장관외과 영역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면서, 위장관외과 의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후학들에게 새로운 바탕을 마련하는 학회를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문수 회장은 현재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며, 대한위암학회 이사장(2017~2019)을 역임한 바 있다.

구미 지역민의 '따뜻한 35년 친구'

순천향대 구미병원, 지역민을 위한 아낌없는 의료봉사

자원봉사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회성이거나 상황에 따라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그 의미를 더 크게 발할 수 있다. 따라서 봉사 단체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선행으로 오래 지속 되는 것이다. 순천향대 구미병원의 변함없는 환자사랑으로 이어온 의료봉사 35년, 앞으로도 구미지역 지역민들과 함께 100년을 이어 갈 것이다.



구미병원 의료봉사단의 한결같은 사랑과 나눔, 사회공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12월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제19회 보령의료봉사상과 2004년 11월 MBC 사회봉사대상 본상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번기 지역민을 위한 의약품 제공과 무료 건강검진 실시

구미병원 의료봉사단은(단장: 양승부 기획실장) 구미제일 MJF 라이온스클럽과 함께 지난 10월 5일(토) 구미시 무을면 문화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사랑 나눔 합동봉사를 펼쳤다.

이번에 진행된 사랑 나눔 합동봉사는 순천향대 구미병원 양승부 단장과 라이온스클럽 이상만 회장, 김성호 무을면장을 비롯하여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향대 구미병원과 라이온스클럽이 공동으로 기획하여 의료봉사와 음식 나눔 봉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날 실시된 의료봉사에는 양승부 단장(영상의학과)을 비롯해 정선영 교수(신장내과), 조현포 교수(이비인후과) 등의 의료진과 간호사, 약사, 방사선사 등 40여명의 의료봉사팀이 함께 참여 하였으며, 건강상담과 진료를 통해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하였고 복부초음파, 혈액·소변검사, 흉부 X-ray, 골밀도 검사, 심전도 등의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하여 바쁜 농번기에 병원내원이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또한 구미제일 MJF 라이온스클럽 회원 40여명이 함께 동참해 거동이 불편해 진료소를 찾기 어려운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차량운행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참여한 모든 지역민들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떡과 과일 등 다과와 푸짐한 음식을 대접하는 등 음식 나눔 봉사가 이어져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1984년부터 35년간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시

구미병원의 의료봉사단은 인간사랑·환자사랑의 순천향 정신을 바탕으로 1984년 11월 창단되어 무의촌과 의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35년간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의사, 약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 교직원 50여명이 자발적으로 함께 의료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농촌진흥청과 공동 기획하여 농번기에 의료봉사와 일손 돕기, 문화공연 등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구미병원 의료봉사단의 한결같은 사랑과 나눔, 사회공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12월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제19회 보령의료봉사상과 2004년 11월 MBC 사회봉사대상 본상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 외에도 구미병원에는 외국인 의료봉사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2006년부터 보건소와 연계하여 이주외국인의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마하뽕센터(경북지역의 이주 외국인들에게 한국 생활 적응력을 높이고자 설립된 센터)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절망에서 다시 꿈을 이룬 기적

백지은 환자와 천안병원 김수아 교수의 20년 이야기

1998년 어느 날, 20살의 백지은 씨에게서 모든 꿈이 날아갔다. 부모님 몰래 했던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친구들과 송별여행을 가던 차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다. 5명 인원 중 4명은 모두 멀쩡한데, 백 씨만 치명적 부상을 입었다. 스무 살 꽃다운 나이에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척수를 크게 다쳤을 뿐 아니라 머리에 꽃았던 핀이 백 씨의 머리에 박히는 큰 사고를 당한 것이다. 교통사고로 백씨는 하체는 물론 상체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백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병원침대에 누워있는 일 뿐이었다. “부모님 몰래 했던 아르바이트, 그리고 그 일을 끝내던 마지막 날에 벌어진 일, 혼자만 다쳤다는 절망감은 처음에는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꿈꾸던 모든 일들이 다 흩어져 날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이때 연을 맺게 된 이가 바로 순천향대 천안병원 재활의학과 김수아 교수다. 전공의 1년차, 26살 신참 여의사와 20살의 여환자의 만남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연찮게 일어났다. 누구한테도 마음을 열지 못할 것 같았던 백 씨에게 김 교수는 친언니처럼 다가와 치료 관련 얘기는 물론 여느 자매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정담을 나누었다. 같은 여자로서 함께 걱정하고 공감하면서 백 씨는 스무 살 꽃다운 여인이 가졌던 꿈을 다시금 꿀 수 있게 되었다.

“8개월의 치료 기간을 생각보다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순천향대 천안병원 재활의학과 모든 의사선생님들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해 주셨고, 특히 김수아 교수님과는 모든 얘기를 함께 공유할 정도로 교감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실력 인정받아 프랑스 파리 전시회 열어...

가족들과 김수아 교수 덕분

백 씨의 꿈은 미술이나 패션을 공부하는 것이었다. 사고로 포기할 뻔 했지만 천안병원에서 퇴원 후 다시금 꿈을 쫓았다. 아직 손사용이 불편해 회화과에는 못 갔지만 백석대학교 시각디자인과에 들어갈 수 있었다. 본인이 바라던 회화과는 대학원에 들어가 소원을 풀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결과 손을 자유롭게 쓸 수는 없지만 이제는 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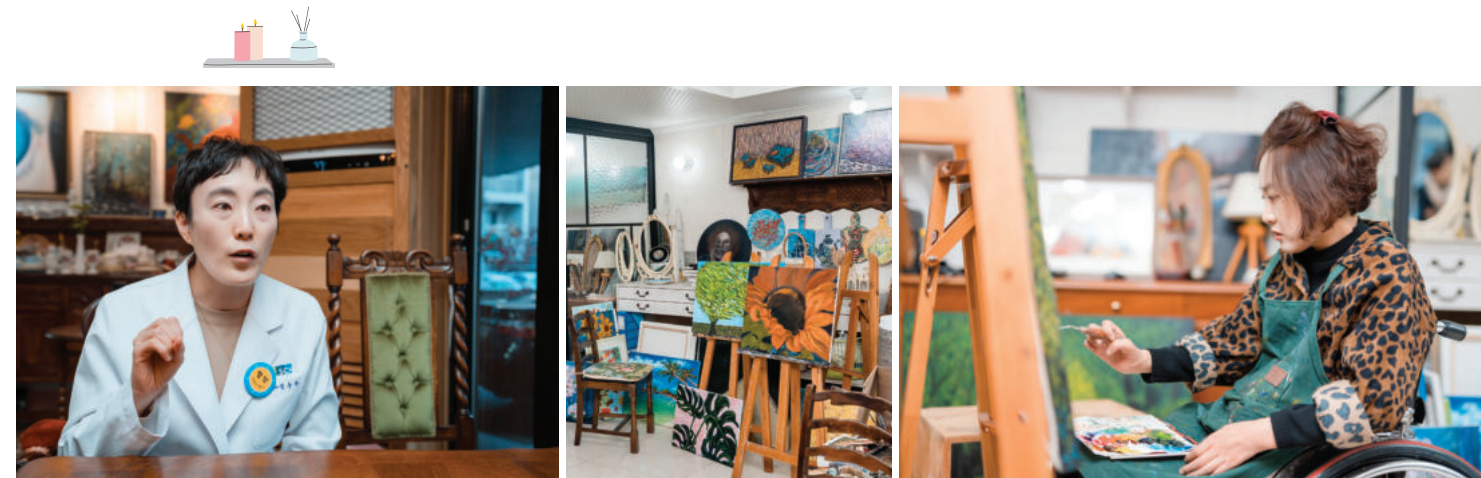


를 그럴만큼 좋아졌다. 올해 5월에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카페와 함께 화실을 오픈했다. 항상 곁에서 딸을 돌보고자 하는 엄마의 마음과 백 씨의 꿈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진 공간이다.

“이제는 제가 하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며 매년 전시회도 개최하고 사람들에게 미술도 가르치며 살고 있어요. 김 교수님도 제 제자입니다. 8개월 동안 저한테 미술을 배우셨거든요(웃음)”

백 씨는 벌써 3년째 프랑스 파리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올해는 예술의전당에서 개인전을 가질 정도로 꽤 성공한 미술가가 됐다.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만 같았던 꿈이 오히려 현실이 됐다.

“김 교수님과 20년 이상 인연을 맺으며 요즘도 함께 차를 마시고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김 교수님을 만나고 또 제가 용기를 내어 사회에 나왔을 때 저를 따스하게 대해 준 많은 주변분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많은 고생을 하면 절 돌봐주신 어머니와 가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두려웠지만, 밖으로 나와서 본 세상은 의외로 따스했습니다.”



김수아 교수, “재활환자의 표본 백지은 환자”... 20년 이상 친 자매처럼 지내

백 씨와 김 교수는 친자매 같이 지낸다. 함께 차를 마시고 그림을 그리고 수도도 떤다. 백 씨에 대해 김 교수는 “대부분의 환자가 집에서 침거하면서 우울증을 앓습니다. 한번 닫힌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거든요. 지은이는 아주 강하고 밝은 여자입니다. 지금도 많은 환자들에게 자신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권해요. 바로 지은이가 그런 사람입니다”

김 교수는 “재활환자에게는 아주 작은 관심과 대화, 교감 하나 하나가 큰 힘이 된다”며 “재활의학은 학식이 뛰어난 의사보다는 감성이 뛰어난 의사가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김수아 교수의 순천향대 천안병원 재활의학과에서는 척수재활은 물론 암재활 치료, 소아 발달장애 클리닉, 소아 족부클리닉 등 재활환자들과 함께 교감하며 치료를 적극 돕고 있다. 소아 관련 재활치료는 이미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고 환자들이 몰려들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김 교수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재활의학과에는 소아재활치료사, 림프전문재활치료사 등 최고의 전문재활사와 의사가 있다”며 “모든 재활환자, 소아환자 그리고 환자들의 가족들까지 함께 교감하며 모두 다시 사회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 씨는 “만약 김 교수님과 같이 교감하며 제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는 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 모습은 없을지 모른다”며 “절망에서 벗어나 다시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준 김 교수님과 순천향대 천안병원 재활의학과 모든 의료진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뷰 전날에도 함께 차를 마셨다는 백 씨와 김 교수는 여느 여자들과 다를 바 없었다. 미술 얘기, 사는 얘기, 주변 사람들 얘기로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의사와 환자로서 이 둘 사이에 더 아름답고 특별한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 둘은 잘 알고 있기에 오늘도 함께 웃는다. 



완벽한 수술만이 환자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

순천향대 서울병원 간이식클리닉, 최고 전문의로 완벽 팀워크 구축

“너는 간도 쓸개도 없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이렇듯 우리말 속담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체의 장기는 ‘간’이다.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라는 의미다. 간은 생명 유지의 필수 장기이며 복잡한 기능과 형태로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이런 간이 손상됐을 경우 유일한 치료방법은 ‘간이식’뿐이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는 이런 간이식을 위한 ‘어벤져스’가 있다. 바로 ‘간이식클리닉’이다.

글 전진용 사진 임수혁



간은 의학이 발달된 현재에도 어떤 인공적인 것이나 다른 동물의 것으로 절대 대체가 불가능한 인체 기관이다. 특히 한번 손상된 간은 회복이 쉽지 않고 큰 손상이 진행된 경우는 사실상 치료가 힘들다. 가장 중요하지만 그만큼 다루기 힘든 장기가 간인 셈이다. 현재 의학에서 간 기능을 상실할 경우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간이식이다. 간이식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치료이다.

장재영
내과 교수



Mini Interview

기증자·수혜자 모두 위한 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

“간이식 수술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교수님들과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장재영 교수는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간이식 수술이지만 그동안 오랜시간 준비해 온 것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생체간이식의 경우 복강경 수술 가능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올해 3월에 오신 김경식 교수님과 더불어 많은 교수님들이 간이식 수술에 대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이식 수술 능력은 성공 케이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모든 수술이 완벽한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장 교수는 간이식은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인만큼 간이식클리닉의 모든 의사들이 항상 다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의사로서 환자와 기증자에 대한 도리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수술과 다르게 의사 한명의 역량이 아닌 각 과의 모든 의사들이 한몸이 되어야만 성공적인 케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장의 경우 이식을 하지 않아도 투석을 하며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식 환자는 매우 안좋은 상황이 대 부분이거든요.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제일 난이도가 높고 집중력을 요구하는 수술입니다. 각 파트별로 항상 긴장하며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장 교수는 “간이식 수술의 성적은 곧 팀워크로 증명된다”며 “순천향대 서울병원 간이식클리닉만의 최고의 팀워크로 성공적인 케이스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이식 수술의 핵심은 ‘팀워크’

순천향대 서울병원의 ‘간이식클리닉’이 주목받는 이유는 최고의 팀워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 간이식 수술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소화기내과, 외과, 마취과, 영상의학과, 감염내과, 간이식 코디네이터 등과 함께 간이식 수술을 위한 시스템구축에 힘써왔다. 여기에 김경식 교수가 합류하면서 간이식클리닉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여타 수술의 경우 집도의의 실력에 따라 수술이 판가름 나지만, 간이식수술은 다르다. 모든 분야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야만 완벽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파트 과목 의사들간의 호흡과 팀워크가 수술의 성패를 좌우한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간이식클리닉팀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모든 팀원들간의 팀워크라 설명한다. 순천향대 서울병원의 ‘간이식 어벤져스’라는 말도 이 때문이다.

소민주 간이식 코디네이터는 “더 큰 병원의 간이식팀들도 많지만 순천향대 서울병원 간이식클리닉의 가장 큰 힘은 팀워크이며 팀워크를 기반으로 각 분야 교수들이 작은 검사 하나까지 최선을 다하며 환자와 가족, 그리고 기증자 모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간이식수술 최고 전문의 김경식 교수 합류

그동안 간이식수술 관련 시스템을 꾸준히 준비해 온 순천향대학병원은 올해 3월 서울삼성병원에서 김경식 외과 교수를 영입했다. 간이식 수술 전문가인 김교수를 중심으로 '간이식클리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서울병원의 '간이식클리닉'은 소화기 내과의 장재영 교수와 정승원 교수가 중심이 되어 이미 오래전부터 간이식 수술 분야 역량 강화에 있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김경식 교수의 합류는 '간이식클리닉'에 있어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일이다. 장재영 교수는 “김경식 교수는 이미 간이식 수술분야에서 정평이 나있다. 간이식 중에서도 복강경 간이식 분야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다. 향후 서울병원 간이식클리닉은 보다 많은 성공적 수술 케이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Mini Interview

완벽한 수술만이 환자와 기증자에 대한 최고 예우

“올해 3월에 순천향대 서울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간이식 수술 경험이 많지만, 이곳의 간이식클리닉의 모든 구성원들의 팀워크에 놀랐습니다. 간이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모든 파트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팀워크이거든요. 이 팀워크가 바로 우리 간이식클리닉의 힘이자 경쟁력입니다”
김경식 교수는 수혜자인 환자는 물론이고 기증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간이식 수술의 가장 핵심이라 강조했다.
“기증자의 송고한 결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 만족할 수 있는 수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중 하나가 개복이 아닌 복강경 수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실력과 노력으로 준비된 의사들만이 가능하거든요. 저희 간이식클리닉은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환자와 기증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라 생각합니다”



소민주
간이식 코디네이터

이식환자 위해 40kg 장비 들고 전국 누벼

아무리 뛰어난 의료진과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간이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간이식 수술은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서 관리한다. 간이식에서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으로는 MELD(멜드) Score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코디네이터는 이식대상자를 상담하여 등록하는 날부터 Total bilirubin, INR, Creatinine 수치를 항목으로 하는 MELD(멜드) Score 및 혈액투석여부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업무 프로그램에 입력해야한다. 이 점수로 응급도를 산정하게 되며 뇌사자 발생시 MELD(멜드) Score에 따른 응급도와 그 판별기준에 따라 이식대기자 중 최종 수혜자로 선정된다. 24시간 어느 때라도 전국에서 뇌사 장기기증자가 발생할 경우, 이식대기자의 해당 병원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에게 연락이 온다. 이 때 부터 코디네이터의 본격적인 업무는 시작된다. 코디네이터와 해당 교수진은 뇌사자 발생 시 이식대기자의 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 간이식 진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 후, 환자 혹은 보호자의 최종면담으로 수술여부를 결정한다. 뇌사자간이식(뇌사상태인 기증자의 간을 이식하는 방법)은 존각을 다투는 매우 긴박한 수술이기에 간이식이 결정되면 코디네이터 1명과 교수 2명이 한조가 되어 전국 어디든 가장 신속하게 움직인다. 필요한 장비만 40kg에 달한다. 또한 생체간이식(생존 기증자의 간을 일부 절제하여 이식해주는 방법)의 경우는 장기매매와 같은 거래가 있는지, 원치 않는 장기기증을 강요받고 있는지 등 모든 상황을 체크하고 확인하여 간이식 수술절차가 진행된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도 교수진과 코디네이터는 환자의 수술 후 상태와 경과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준비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신속하면서도 매우 세밀한 체크가 필요하다. 점에서 팀워크와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올해 '간이식클리닉'팀은 총 8건의 이식 수술을 진행했다. 생체간이식 4건과 뇌사자간이식 4건 모두 성공적이었다. 간이식 자체가 기증자와 뇌사자의 수요가 있어야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되기 때문에 많은 수술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간이식클리닉은 부여된 수술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매 상황을 항상 완벽히 대비하고 있다.

김경식 교수는 “아직까지는 서울병원 간이식클리닉이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어진 수술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제는 간이식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한번쯤 회자될 수 있는 의료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환자를 내 가족처럼 돌보는 의료진에 감명

“치과나 성형외과 등의 코디네이터와 달리 간이식코디네이터는 보다 전문적인 영역이라 생각해요. 환자와 기증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거든요”
소민주 간이식 코디네이터는 힘들지만 무엇보다 보람있는 일이라 설명했다.
“전국에서 뇌사자가 생겼을 때, 국립 장기이식관리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신속하게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해요. 환자, 가족, 의료진, 그리고 관련 당국의 모든 절차를 확인하고 조율해야 하는 일거든요”
간이식수술은 단순히 수술의 기술뿐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간이식은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는 분야이기에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매매와 같은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 환자의 상태, 가족들의 상황 등등 많은 요소들을 확인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뇌사자의 간 기증이 있으면 제일먼저 달려가는 이가 바로 코디네이터다. 기증자가 있다면 의료진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최단시간에 달려간다. 무엇보다 존각을 다투는 수술인 만큼 신속하고 정확해야만 한다.
“힘든 과정이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 담당하는 환자분이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 너무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저의 첫 환자분이 수술을 잘 마친 후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사진을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그 행복감은 이루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소민주 코디네이터는 “저희 서울병원 간이식클리닉의 모든 의사들이 환자를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세세하게 돌보는 모습을 보며 큰 감명을 받았다”며 “비록 힘들고 부담가는 일이지만 최고의 의료진과 함께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

Mini Interview



김경식
외과 교수

환자를 부모처럼, 형제처럼 돌봐야

“명의란 의술도 중요하지만 환자 생각하는 마음의 깊이입니다”

순천향대 구미병원 성형외과의 정현교 교수는 구미가 제2의 고향과도 같다. 어머니는 산부인과 전문의, 형은 피부과 전문의인 의사집안에서 자란 정 교수는 의사라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은 생각해 본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사라는 직업을 일이라기보다는 삶 자체로 생각한다. 그런 그와 늘 함께 해온 곳이 바로 구미병원이다.

글 전진용 사진 임수혁

물질적 필요보다 환자와 나누는 정신적 필요 선택

정 교수가 구미병원과 첫 연을 맺은 것은 공중보건의로 복무를 시작한 1992년이다. 그 후 2001년까지 계속 구미병원에서 환자와 함께 했다. 그 후 정 교수는 2001년 구미병원을 뒤로 한 채 성형의 메카인 강남역에 병원을 개설했다. 눈 수술이 전문이었지만 눈, 코, 안면윤곽과 같은 성형수술로 많은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늘 마음한편에는 항상 구미병원에서의 생활이 그리웠다. 강남이라는 특성상 수많은 성형외과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그동안 구미에서 해왔던 의료봉사와 같은 일을 할 여건이 되지 못했다. 또한 종합병원에서 후배를 가르치고 여러 동료들과 우정을 나누며 지내던 시간과는 거리가 멀었다.

“성격상 여타 성형외과처럼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권유한다거나 여러 성형수술을 코디네이션해서 수술비를 높이는 것이 항상 불편했습니다. 결국 다시 병원을 접고 그리웠던 구미행을 결심했어요”

15년간 서울 강남에서 누려온 화려한 생활과 물질적 풍요를 뒤로 하고 본인이 진정 행복할 수 있는 소박한 생활과 정신적 풍요를 택한 것이다.

“강남이라는 곳이 물질적인 욕망을 채워 줄 수는 있을지언정 마음의 평온을 줄 수는 없었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환자를 의사의 물질적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구미의 시절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후배를 가르치고 환자를 마음으로 돌보는 일이 더 맞았던 거 같아요. 이제는 제 의사로서의 남은 인생은 모두 이 곳 구미에서 환자와 동료들과 보낼 생각입니다”



명의란 의술자체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의 깊이에 따라 결정된다.
의사는 환자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하며
환자를 부모처럼, 형제처럼 생각하며 돌본다면
의술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



10년간 의료봉사단장으로 지역주민과 아픔나눠

구미는 공단이라는 특성상 구미시 외곽에는 여전히 병원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의료사각지대가 꽤 많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를 치유해주고 의료봉사 하는 것이 정 교수에게는 삶이자 행복임을 깨달았다.

“예전에는 공장지역에서 절단사고나 화상환자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미용환자보다는 욕창으로 살이 썩는 노인환자들이나 당뇨로 다리가 썩어가는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미용성형보다는 더 힘들고 거친 수술이 많았지만 보람은 더 컸습니다”

정 교수는 “환자가 더욱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행복을 느끼지만, 다치고 상처받은 환자가 새살이 돋고 다시 건강해지는 모습에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다.

구미병원은 지역사회에서 35여년간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함께 지난 2010년부터 공동으로 기획



해 의료봉사와 일손돕기, 문화공연 등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6월에 경남 산청군 오부면 중촌리 일원에서 '찾아가는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을 열고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농촌사랑의 의료봉사 활동을 펼친바 있다.

정 교수도 1992년부터 2001년까지 구미병원 의료봉사 단장으로 시내 외곽의 보건소, 마을회관, 양로원 등으로 돌며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했다.

“강남에서는 미용이 90%를 차지했다면 이곳은 반대로 80%가 당뇨, 욕창, 사고 등의 피부재건이거든요. 강남의 성형외과에서는 눈, 코, 윤곽 수술로 환자들이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보며 보람도 느꼈지만, 의료봉사와 같은 일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구미에서 동료와 선후배들과 함께 환자를 치유해주는 것이 바로 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환자들이 온전히 쾌유되는 모습을 보면서 의사로서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의술도 중요하지만 병원 내 '화목'은 더 중요

개인병원이 아닌 조직체계인 종합병원에서 정 교수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화목'이다.

가정의 화목도 중요하지만 병원이라는 직장 내의 화목이 의사와 병원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지금도 선배들의 조언을 되새기며 모든 구성원들과의 화목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정기적으로 부서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대화를 하며 우정을 다진다. 정 교수는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업무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것이 동료들과의 화목함이라 강조한다.

“지금은 정년퇴직을 맞거나 은퇴를 하신 선배들한테 배운 것은 단순히 의술만이 아니었어요. 존경하는 선배들의 공통점은 모두 병원 내 화목을 강조하셨다는 점입니다. 화목함 속에서 의사는 환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성심껏 돌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준 선배님들에게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하고, 많이 공부해야 한다.
또한 의사 본인 능력의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
능력이상의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의술은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최선의 선택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정 교수는 시간이 날 때는 주로 등산과 캠핑으로 자연과 함께 한다. 근처 산을 오르거나 캠핑장에서 혼자 텐트를 치고 자연속에서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구미에는 금오산과 같은 아름다운 산이 주변에 많아요. 등산을 하면 신체도 단련이 되고 자연속에서 많은 안식을 찾을 수 있거든요. 힘든 일과나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연속에서 많이 순화시킬 수 있는거 같아요. 의사도 몸과 마음을 단련해야 환자에게 온 정성을 쏟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의 자기관리는 필수입니다.”

또한 오랜시간 수술로 인해 뭉치고 굳은 근육은 15년간 해온 국선도 수련으로 풀어준다.

단전호흡과 여러 수련을 통해 수술로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 결국은 이 또한 환자를 더 잘 치료하기 위한 본인만

의 수련인 셈이다.

“구미병원 초기에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의료진들이 많이 고된 날들을 보냈어요. 저도 과로로 인해 온 몸이 쭈시고 아팠거든요. 그때 알게 된 것이 국선도예요. 물리치료 등 그 어떤 치료도 소용이 없던 것이 국선도 수련 3개월만에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국선도로 심신의 건강을 지키고 있어요. 마음과 몸이 건강해야 환자를 더욱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 몸과 맘이 힘들면 환자를 잘 돌볼 수가 없어요”

명의(名醫)는 환자를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한다

정 교수의 의사인생에서 가장 깊이 새기고 있는 말이 있다. 의사는 늘 환자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말이다. 지금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환자를 대한다.

“일본에서 유학시절 스승에게 배운 말을 항상 잊지 않고 있어요. ‘환자를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라’라는 말입니다. 의사는 환자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하며 그러면 환자는 자연스레 잘 치유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후배들에게도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정 교수는 환자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강조했다.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보호자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생각하며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것. 그러다 보면 환자는 의사를 더욱 신뢰하게 되고 의사는 각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명의(名醫)란 의술자체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의 깊이에 따라 결정된다”며 “환자를 부모처럼, 형제처럼 생각하며 돌본다면 의술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후배의사들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많이 보고, 많이 하고, 많이 공부하라(See Much, Do Much, Study Much)”며 “다만 의사로서의 능력치를 넘는 과도한 욕심은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도 조언했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이 곳 구미에서 환자들을 잘 돌봐주고 동료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구미병원만 받아준다면 의사생활을 끝마칠 때까지 이 곳에서 환자와 함께 할 생각입니다. 이 곳의 생활이 의사로서, 또한 한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하거든요”

십 수 년간 구미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하며 또 환자들을 돌보면 보낸 시간이 정 교수에게는 물질적 풍요를 주었던 강남에서의 시간보다 몇 곱절은 더 소중해 보였다. 



밀알회 감경식 회장

“작은 나눔으로 큰 행복 느껴요”

2001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작은 모임이 하나 만들어진다. ‘밀알회’다. 처음 이름을 ‘밀알회’라고 지을 때만 해도 이 ‘밀알’이라는 말이 ‘어떤 일에 작은 밑거름이 된다’는 비유적인 의미처럼 이 사회를 좀 더 밝게 해주는 밑알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19년이 지난 지금 이 ‘밀알회’는 주변의 힘든 이웃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본보기이자 작은 밑거름이 되고 있다. 밀알회의 감경식 회장은 작은 나눔이 한 사람의 눈을 밝게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한다.

글 전진용 사진 임수혁

밀알회는 작은 친목모임이다.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한두 명씩 모여서 한 달에 한번 저녁 식사를 같이하며 우정을 다진다. “이제 밀알회의 회장을 한지 5년이 됐습니다. 처음 모임의 회원 중 한분이 신원한 신경외과 교수님이셨거든요. 그제 계기가 되어 순천향대 부천병원과 연을 맺게 됐습니다. 큰돈이 아니지만 매달 회원님들이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회비를 절반을 개안수술이 필요한 환자분들의 수술비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 회장은 40여 년간 용산시장과 가락시장에서 채소유통 사업을 해왔다. 성공한 유통 사업가로 라이온스 클럽 회장까지 역임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모임이 ‘밀알회’다.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허세부리지 않으며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점, 이것이 감 회장이 바라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185명 개안환자에 1억465만원 전달

밀알회는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50만원, 12월에 100만원 총 650만원을 기부한다. 모두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된다.

“의사, 유통업, 무역업, 토목, 외식업, 운수업 등 각기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마음은 같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아닌 이제는 더불어 나누는 세상의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을 하고 저녁에는 잠을 청해야 하는 회원님도 모임에 들러 회비를 주고 가시곤 합니다. 다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겠지요.”

처음 7명으로 시작된 밀알회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85명의 환자에게 1억465만원을 기부했다. 고작 7명에서 시작한 작은 친목모임이 185명의 안과환자에게 밝은 빛을 선물했다. 그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작은 나눔을 실천한 밀알회의 마음은 수백 명의 이웃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할 수 있었다.

“현재는 총 21명의 회원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부천, 밀게는 강원도 홍천에서까지 오십니다. 처음 같

이 시작한 회원 분들이 이제 70세가 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매년 힘든 걸음을 하면서도 환자들에게 작은 보탬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 각기 다른 사업을 하고 이제는 은퇴를 해야 할 회원들도 많지만 이 밀알회가 지금과 같은 취지로 계속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뜻을 같이 한다.



“사실 회원분들이 연세가 많은 것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막내 회원이 48세예요. 앞으로 젊은 후배들이 선배들이 해온 일들을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가락동농수산물 시장 내에도 뜻을 같이해 회원이 된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또 이 같은 회원들이 선배들의 뒤를 이을 것이라 생각해요. 작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되는지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홀로주의’가 아닌 ‘더불어주의’를 꿈꾸다

감 회장에서 가끔 편지를 받는다. 개안수술 혜택을 받은 환자들의 감사편지다. 손 편지로 전해지는 환자들의 진심어린 감사함은 감 회장이 5년 넘게 밀알회 화장으로 지켜온 힘이 됐다.

“아이부터 성인,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양한 이웃들이 개안 수술을 통해 빛을 선물 받았습니다. 저희 밀알회 회원님들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줬다는 것이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감 회장이 느끼는 요즘 사회는 너무 각박하다. 자신의 이익, 자신만을 위한 선택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적어도 밀알회가 같은 작은 실천이 이러한 사회에 작은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주위를 보면 나 혼자만 생각하는 ‘홀로주의’가 많습니다. 수십 년간 성실히 사업을 해온 분들이라면 느낄 것입니다. 사회는 혼자만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홀로주의’가 아닌 ‘더불어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밀알회는 작은 즐거움도 함께 나누고 큰 아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작은 밑알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 모이는 밀알회는 소박한 모임이다. 돌아가며 한 번씩 저녁을 사고 소주 한잔을 기울이고 서로 허그를 하고 덕담을 나눈다. 밀알회와 같은 많은 친목모임이 있지만 그 어떤 친목모임이 사람에게 빛을 선물할 수 있겠는가? 밀알이라는 말처럼 작게 시작한 그들의 사랑 나눔이 이제는 185명의 이웃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지 생각해본다. ■SCH

임신과 바이러스 감염

예방접종 통해 항원과 항체 형성해야 안심... 추가접종까지 완벽하게

고령임신이 증가하는 추세하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임신과 출산에 따른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혼을 앞뒀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분들은 꼼꼼하게 산전검사를 받고 건강한 임신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check
01

면역력이 약한 임신부 A형 감염에 취약

B형 감염 항원 및 항체검사는 산전 검사 시에 함께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임신 중 간 기능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약 10% 정도다. 임신 중에 감염에 걸리거나 이미 만성 간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태아에게 감염되는 것은 물론이고 유산, 조산, 기형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산모에게 감염이 있어도 자궁 속에 있는 태아에게는 거의 전염되지 않지만 분만 시에 B형간염 만성 보유자인 산모의 혈액 등 체액이 태아에게 묻어 감염되거나 신생아기에 모체와의 잦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출생 전 후 감염된 아기 중에는 드물게 심한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산모의 B형간염이 태아에게 감염될 확률은 B형간염 바이러스 상태에 따라 다르다. 임신부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전염력과 번식력이 왕성하면 태아에게 감염될 확률은 85~90% 정도, 만약 약하다면 10~15%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바이러스 농도가 높은 임신부는 임신 3분기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여 자궁내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이 권장되고 있다.

A형간염은 특히 임신부들의 관심이 높다. 2010년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A형간염 환자의 80%가 20~30대의 가임기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면역력이 약한 임신부들은 특히 A형 감염에 취약하다. 대다수 산모들은 태아에게 영향을 줄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도 모체에 감염된 A형간염 바이러스는 태아에게 감염될 위험이 낮다. 조산이나 기형 등과의 연관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태아의 건강은 안심해도 좋다. 또 임신부도 급성기에 발생 할 수 있는 1% 이하의 전격성 간 괴사가 생기지 않는 한 완전히 회복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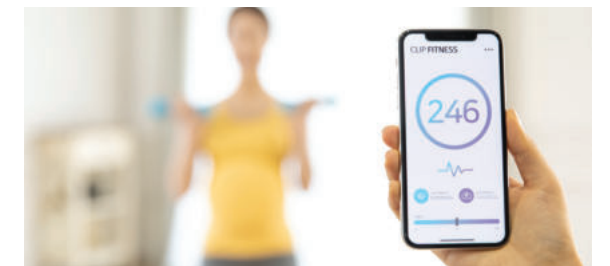
check
02

과체중·비만 임신부,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체중조절로 지방간을 예방해야

C형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한 산모의 경우는 분만 중 태아 감염률은 5% 이하에 그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산모나 태아가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예방접종이다. 만약 A형간염과 B형간염 바이러스의 항원과 항체가 없다면 예방접종을 통해 항원과 항체를 형성해야만 임신 중에 감염이 걸리더라도 안심할 수 있다. 예방접종 시에는 추가접종까지 완벽하게 맞아 두는 것이 좋다.

A형간염과 B형간염 예방백신은 임신을 한 후에 맞아도 태아에게 해롭지 않다고 알려졌지만 아직은 확실하게 밝혀 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임신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간질환은 임신중독증과 동반된 간질환과 감염이다. 드물게 생기는 하지만 이는 산모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임신부는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체중을 조절해서 지방간을 예방해야 한다. 임신을 하면 체액이 20% 정도, 콜레스테롤이 25~50% 정도 증가하고 중성지방이 150% 정도 높아져 간에 축적되기 때문에 지방간 등 간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지방간으로 인한 간 기능 이상은 대개 임신 중기까지 나타나다가 말기쯤 회복된다.

임신 중독증은 분만을 하면 저절로 빠르게 좋아진다. 임신중독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산모가 명치끝이나 간 쪽에 통증이 심하다면 간출혈이나 혈종, 간 파열의 가능성을 의심해야하고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서 빨리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장재영 교수
순천향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젊은 나이 심한 건망증, 성인 주의력결핍증(ADHD) 의심해야

젊은 성인들이 심한 건망증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을 정도로 '내가 치매가 아닌가?' 싶어 걱정을 한가득 안고 내원하고, 심지어는 다른 병원에서 벌써 치매 검사를 받아보았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다. 대개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주변 사람들의 강한 권유로 마지못해 내원하기도 한다.



성인ADHD 환자는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한다. 이는 6~8% 정도 되는 소아 환자의 절반수준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ADHD를 앓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기 증상의 상당수가 성인기까지 지속

환자들의 증상을 들어보면, 여러 업무를 지시받았을 때 꼭 한두 가지는 빼먹고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사항도 반복해서 실수한다. 대개는 일을 미리미리 처리하기보다는 조금 미루었다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일도 집중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붙잡는다. 이에 대해 직장상사나 동료들에게 자주 지적받으면서 스스로 위축되고 의욕이 점점 꺾여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환자들에게 학창시절에 관해 물어보면 준비물이나 숙제를 빼먹을 때가 자주 있었고, 부모나 선생님에게 잦은 지적을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또, 공부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좋아하는 과목은 열심히 잘했지만 싫어하거나 관심 없는 과목은 집중하지 못하거나 아예 포기해버렸다고 회상하기도 한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인 'ADHD'는 아동·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ADHD 환자들의 상당수가 성인기까지 증상이 지속된다. 아동기 때 나타나는 과잉행동 증상은 비교적 완화되는 반면, 부주의 문제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자료에 따르면 성인ADHD 환자는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는 6~8% 정도 되는 소아 환자의 절반수준으로 소아ADHD 환자 중에 절반은 성인이 되어서도 ADHD를 앓고 있다는 것이다.

'조용한 ADHD' 환자, 성인 되어서도 본인의 질환을 모를 수 있어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 ADHD 증상의 양상이 다르게 진된다. 청소년기에는 과잉행동이 적게 나타나는 반면에 충동성과 주의력 결핍이 두드러지면서 위험하고 불필요한 행동, 반항 등이 나타나게 된

다. 성인기로 접어들면 충동성은 줄어들게 되지만 중요한 물건들을 잘 잃어버린다거나 대화에 잘 집중하지 못하는 부주의형이 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행동 변화를 ADHD가 자연스럽게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ADHD가 널리 알려져 어려서부터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의 30대 이상 성인들은 아동기 시절에 ADHD 진단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가 흔치 않다. 과잉행동이나 충동성이 두드러지지 않고 부주의 징후가 주로 있는 '조용한 ADHD' 환자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본인의 질환을 모를 수 있다.

ADHD 환자라고 해서 꼭 지능이 낮은 것은 아니다. 지능은 굉장히 우수한데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 기능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본인이 가진 인지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부주의 증상 외에도 계획적이지 못한 충동적인 소비성향, 감정조절 어려움, 잦은 분노 폭발, 자해, 음주 문제 등도 성인 ADHD에서 흔한 증상이다. 성인ADHD 환자는 다른 동반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심한 건망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꼭 받아야

ADHD환자의 85%가 불안장애, 기분장애, 약물 오남용을 경험한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 ADHD 치료가 먼저 되어야 다른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다른 추가 질환을 겪을 위험이 높고 학업, 사회생활, 대인 관계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기 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ADHD 치료 방법 중에서도 약물 치료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자신과 잘 맞는 종류의 약물을 찾으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ADHD 발병 요인 중에서도 유전적, 생물학적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늦은 나이에 진단받은 성인 ADHD 환자들이 치료를 시작하면, 전과는 확연히 다른 자신을 경험하게 된다. 치료를 받으면서 부주의 증상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감정 기복, 수면 문제, 충동 조절 어려움도 같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삶에 대한 의욕도 향상된다. 따라서 노년기에 접어들지 않았는데도 심한 건망증을 앓고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만나 정확한 평가와 진단을 꼭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지원 교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젊은 여성 공격하는 희귀난치병들

1 천의 얼굴 ‘전신홍반루푸스’

체내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침입한 유해균을 물리치며 우리 몸을 보호한다. 하지만 면역세포가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유해균으로 잘못 인식하고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한다. 난치성 자가면역질환 중 하나인 전신홍반루푸스는 주로 젊은 여성에서 나타난다. 전신홍반루푸스 환자 10명 중 8~9명이 여성이며, 20~30대 여성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유전 + 환경, 에스트로겐

신체의 다양한 조직에 만성 염증 증상을 유발하는 전신홍반루푸스는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에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쳐 발생한다. 전신홍반루푸스를 유발하는 구체적인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특정 바이러스, 흡연, 자외선 노출과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됐다. 전신홍반루푸스 환자 중 특히 젊은 여성이 많은 이유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알려져 있다. 에스트로겐을 포함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거나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은 여성은 전신홍반루푸스가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증상 다양, 피로감 가장 흔해

전신홍반루푸스는 피부병변이 늑대에 물린 자국을 닮았다는 점에서 유래됐다. 루푸스는 라틴어로는 늑대를 뜻하고, 홍반은 붉은 점을 의미한다. 전신홍반루푸스는 다양한 피부증상이 흔하게 발생한다. 관절, 신장, 심장, 혈액, 폐, 뇌 등 여러 장기에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환자마다 증상이 발현되는 장기는 다르다. 어떤 환자는 관절만 아프거나 피부에만 이상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떤 환자는 통통 부으면서 신장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혈소판 감소증, 용혈성 빈혈, 심부전증, 간질성 폐렴, 폐동맥 고혈압 등 다양한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천의 얼굴을 가진 병으로도 불린다. 이처럼 여러 증상이 있지만 피로감이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전신홍반루푸스 환자 95% 이상이 만성 염증으로 피로, 권태, 발열,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 전신 증상을 호소한다.

평생 약물 복용해야

증상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전신홍반루푸스는 어떤 장기에 침범했는지, 현재 질환의 활성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방법이 결정된다. 치료약물에는 항말라리아제,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가 있으며, 합병증 감소를 위해 고혈압, 고지혈증, 골다공증 약도 사용된다. 약물 종류에 따라 치료기간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당뇨병 · 고혈압처럼 평생 조절해야 한다. 약물이 주된 치료법이지만 과도한 자외선을 피하고, 적정 체중과 근육량을 유지하며, 예방접종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까지 특정 음식이 질환 경과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없기 때문에 균형잡힌 식단으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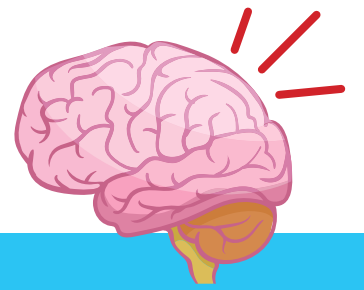
약 안 쓰면 장기손상, 사망까지

약물 부작용을 걱정해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약물치료 중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약물 부작용보다 치료를 받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가 더 크다. 중증도가 높은 전신홍반루푸스 환자가 약물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장기손상 상태가 될 수 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용량의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신홍반루푸스로 진단받은 뒤 좌절하고, 치료 도중 우울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우울증은 복약 순응도가 떨어지는 등 질환 악화로 이어지기 쉽다. 이때 가족, 친구들의 응원이 중요하며, 환자 스스로 강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함께 적절한 식단 · 체중관리, 꾸준한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장성혜 교수
천안병원 류마티스내과



2 뇌와 척수를 파괴하는 ‘다발성 경화증’



국내 다발성 경화증 환자는 약 2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다발성 경화증은 모든 나이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20~40대 젊은 여성에서 발생한다. 발병 후 5~10년이 지나면 장애가 나타나고,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조기진단과 적극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팔 · 다리 감각소실, 마비 등 증상 다양

다발성 경화증은 뇌, 척수, 시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이다. 염증은 중추신경계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르다. 대체로 팔 · 다리 감각소실 및 위압감, 편마비 · 하지마비 · 사지마비, 균형감각 소실, 어지럼증, 기억력 장애, 인지기능 저하, 피로감, 우울증, 시력저하, 하나의 사물이 둘로 보이는 복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염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거나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될 수 있다.

재발·회복 반복

다발성 경화증은 양성, 재발이장형, 2차진행형, 1차진행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재발이장형이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재발이장형은 증상의 재발과 회복이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장애로 이어진다. 다발성 경화증은 유전적인 요인과 더불어 적은 햇빛 노출량, 낮은 비타민D 수치, 흡연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 원인이다. 진단을 위해서는 병력 청취 및 신경학적 검진을 바탕으로 MRI촬영, 뇌척수액 검사, 유발전위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한다.

인터페론 주사로 재발 예방

완치가 어려운 다발성 경화증은 재발방지를 통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치료목표다. 치료는 크게 급성 악화 및 재발 치료와 질병 완화 치료(Disease Modifying Therapy)로 구분된다. 급성 악화 및 재발 시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주사를 투여하고, 이에 효과가 없는 심한 급성의 경우에는 혈장교환술을 시행할 수 있다. 질병 완

화 치료로는 면역조절제를 사용한다. 대표적인 치료제로 인터페론 주사제가 있으며, 근래에는 경구용 약제도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인터페론 주사제는 장기간 사용해도 비교적 부작용이 적고, 안정성이 입증된 약이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주사 후 몸살과 같은 근육통, 관절통, 미열, 오한 등이며, 주사치료 초기에 흔하게 나타난다. 이외에도 주사 부위에 부종, 통증, 2차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1차적인 질병 완화 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빈번하거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면 2차 약제로 면역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다.

충분히 햇빛 쬘고, 규칙적인 생활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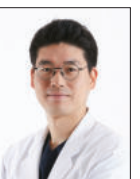
다발성 경화증 환자는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햇빛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도록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감기 등 감염으로 인해 증상이 재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위생도 철저히 해야 한다. 규칙적인 생활과 함께 일정한 수면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금연은 필수다.

잘 관리하면 임신도 문제없어

다발성 경화증 환자 중 젊은 여성이 많은 만큼 임신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임신이 다발성 경화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임신이 가능하다. 오히려 임신으로 인해 다발성 경화증이 호전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임신 시도 전에는 다발성 경화증을 충분히 치료하고 계획적으로 임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희귀난치성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쉽다. 하지만 낙담하지 않고, 다발성 경화증 전문 의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석진명 교수
천안병원 신경과



아토피질환 치료, 증상별 해법 달리해야

개인에 따른 정확한 진단으로 치료법 선택 중요



외래를 보다 보면 아이의 피부 병변을 보여 주면서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 아이가 아토피피부염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부모님들이 많다. 하지만 막상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아토피피부염을 두려워하기는 하나 이 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는 듯하다. 아토피피부염(atopic dermatitis)은 만성으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특히 소아 연령에서 호발 하는 알레르기질환이다. 증상시작 환자의 80%가 주로 영유아기인 5세 이전에 발병한다. 무엇보다도 아토피 피부염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단순한 질환이 아니며, 질병의 완치라는 관점에서보다는 질병의 조절이라는 관점으로 환아나 보호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치료 방법의 선택은 환아 나이, 병변의 진행단계, 침범부위 및 정도, 감염의 존재여부, 이 전 치료에 대한 반응 등에 따라 환자마다 다르게 선택되어야 한다. 아토피피부염 치료의 목표는 건조한 피부의 적절한 보습, 악화요인의 제거, 그리고 국소 요법과 전신 요법을 이용한 소양증과 피부염의 감소이다.

01 목욕과 보습제 사용

목욕은 과도하게 빈번히 시행하면 수분 증발에 의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피부 각질층의 위축, 파열에 의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외부 자극제의 피부 침투를 용이하게 하지만, 적절히 시행하면 피부를 청결하게 만들 뿐 아니라 보습효과를 줄 수 있다. 비누는 순하고 방향제가 함유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목욕으로 인한 피부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목욕 시 목욕용 오일이나 이와 유사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목욕 후 3분 이내에 피부가 촉촉한 상태에서 유화제 (emollient)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도포하여야 한다. 보습 제나 유화제에 함유된 일부 성분 (propyleneglycol, urea)은 환아의 손상된 피부에 도포할 때 오히려 자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개인 환아에 맞는 적절한 유화제를 선택 하는 것이 중요하다.

02 흡입항원 및 자극제의 회피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외부 자극에 대해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므로 소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들 (열, 발한, 양모, 정서적 긴장, 감기 등의 상기도 감염, 꽃가루) 등을 피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기온이나 습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환경은 피하여야 하며 급격한 온도 변화도 좋지 않다.

36개월 이후의 환아에게는 집먼지 진드기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흔하므로 침대 매트리스 및 베개는 반드시 커버를 사용하여야 하고, 침대 커버들은 뜨거운 물(>60℃)로 세척하여야 한다. 카펫도 자주 청소하여야 하고, 애완동물의 털 또는 비듬에 의해 피부염이 악화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03 음식물 알레르기

일반적으로 중증의 피부염을 지닌 36개월 이하의 소아에서 음식물 알레르기가 있으며 이로 인해 피부염이 악화된다. 한국 영아에 있어 음식물 알레르기를 잘 유발시키는 계란, 우유, 땅콩, 콩의 순이다. 그러나 이런 음식들은 견과류를 제외하고는 나이가 들수록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는 점차 감소한다.

원인 음식물을 찾기 위해서는 피부 단자 시험나 혈액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피부단자 시험은 즉시형의 음식물 과민반응을 감별하는데 유용하지만 임상적으로 무관한 위양성 반응이 많으므로 양성 반응이 반드시 진단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만 6세가 되어야 하고, 항 히스타민제나 감기약을 1주일 정도 중단 뒤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04 국소 스테로이드제

국소 스테로이드제는 아토피 피부염의 주된 치료 약제이다. 그러나 의사의 상의 없이 무분별한 장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즉, 피부위축, 혈관확장, 저색소 침착, 백내장 등의 발생으로 인해 보호자들이 적절한 사용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

바람직한 사용방법은, 어른과 달리 소아는 염증이 발생되면 중등도 이하의 스테로이드제를 하루 2회 도포하고 (가능한 목욕 또는 습포 후 도포) 염증이 감소하면 사용 횟수를 격일로 감소시키면서 보습제와 격일로 병용하여 도포하며, 최종적으로 주 2회 도포로 유지하는 것이 치료 성적이 가장 우수하다. 피부 염증의 결과로 피부장벽이 심하게 손상되면 세균에 의한 초감염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며, 농가진의 조건 즉, 삼출 증가 및 황색의 두터운 가피형성, 병변 주변의 발적 및 부종 등이 관찰되면 적절한 항생제를 동시에 투여하여야 한다.

05 항히스타민제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에 있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양증의 감소이다. 항히스타민제를 주로 사용하지만 히스타민은 소양증을 매개하는 여러 인자 중 하나이며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주된 소양 원인은 아직 확실치 않다. 신경펩타이드가 소양증을 매개하는 중요한 인자로 제시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항히스타민제 사용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선호한다.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소양증 감소에 다소 효과적이며 이는 졸음효과에 기인한다. 성인 아토피피부염에 비해 소아 아토피피부염의 예후는 좋은 편이다.

그러므로 이전 치료에 대한 반응 등에 따라 환아들 마다 다르게 선택되어야 하며, 치료의 목적은 질병의 완치가 아닌 질병의 조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택된 치료법에 의해 염증이 조절 된 뒤에는 질병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요법을 시행하여야 하며 가능한 부작용이 적은 치료 방법을 선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성명순 교수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소아청소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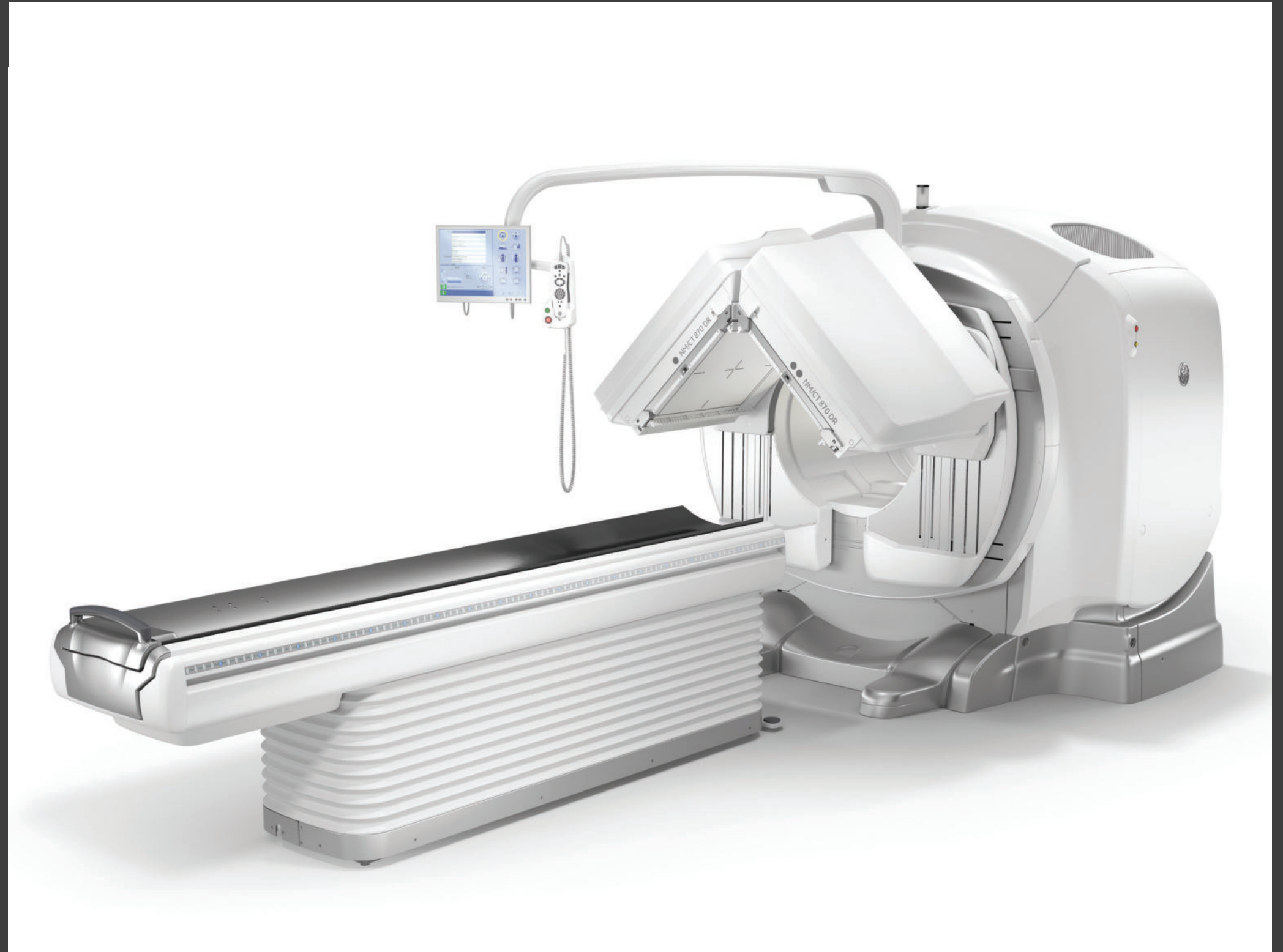
감별이 어려운 부위도 선명한 영상 얻어
정확한 병명 찾아내는 최첨단 의료장비

SPECT GE Healthcare NM/CT 870 DR

SPECT(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단일광자 단층촬영)는 체내에 소량의 방사성동위원체를 투여하고 감마 카메라를 회전시키면서 환자에게서 방출되는 감마 방사선을 검출하여 분포 상황을 영상화하는 장치이다. 부천 병원에서는 12월부터 SPECT - GE Healthcare NM/CT 870 DR을 가동한다.

장점

SPECT - GE Healthcare NM/CT 870 DR은 기존 단일 SPECT 영상에서는 주변의 구조물들과 구별하기 어려웠던 부위를 3차원 결합 영상을 통해 감별할 수 있다. 인체 내 모든 장기인 내분비계, 비뇨기계, 소화기계, 골격계, 호흡기계 등의 암이나 암 전이 여부, 골절 여부 등 병소 부위의 영상을 얻어낼 수 있으며, 뇌혈류나 심근 혈류 등의 분포 영상뿐만 아니라 정량 분석을 할 수 있어 정확한 병명을 찾아낼 수 있다.



두 젊은 의사의 진심, 환자를 감동시키다

환자에게 진심 보이면 환자도 의사에게 마음 열어

일반 사업과 마찬가지로 의사에게도 병원을 개원할 때 절대로 동업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다. 성공할 확률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원개원 동업이 오히려 환자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의사 스스로도 더 성장 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이들이 있다. 서울 석계역에 위치한 '수' 재활의학과의원의 두 동문친구인 서준원·정효준 원장이다.

글 전진용 사진 임수혁



위 : 정효준(순천향의대 22기) 원장
아래 : 서준원(순천향의대 23기) 원장

서울 석계역에 위치한 '수' 재활의학과의원은 이제 개원한지 2년이 조금 넘었지만 이 지역에서는 꽤나 유명한 병원이다. 젊은 원장 두 명이 함께 운영하지만 지역 주민 환자들에게는 그 어떤 병원보다도 친근한 병원이 되었다. 요즘과 같이 개인병원들의 경영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 이토록 짧은 시간 이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두 젊은 의사들이 서로의 각기 다른 장점들을 살려 함께 시너지를 냈기 때문이다.

함께 진료하고 함께 경영하는 최고의 동반자

순천향대학교 의대 동문이자 같은 농구동아리 친구사이인 이 두 의사는 지금도 함께 환자를 진료하고 구경이나 추석과 같이 함께 쉴 때는 가족동반으로 여행을 다닌다. 순천향의대 23기인 서준원 원장은 미국 프로농구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팬이다. 워낙 농구를 좋아해 순천향의대생 시절에도 농구동아리에서 포워드로 활약했다. 사실 의사가 되고자 한 것도 프로 스포츠 팀의 팀 닥터가 되고 싶어서였다. 서준원 원장은 “처음에는 팀 닥터가 되고 싶었지만 지금은 이 지역에서 환자들의 고통을 치유 해주며 많은 보람을 느낀다”며 “많은 분들이 처음 동업으로 개원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반대했지만 지금은 같이 한 것에 대해 부러워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서 원장이 주로 직원을 관리한다면 정 원장은 심사청구와 같은 업무를 주로 본다. 서 원장은 “장점이 다르기에 서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분담하면서 더 큰 시너지가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순천향의대 22기인 정효준 원장도 서 원장과 함께 전공의 시절을 보내며 우정을 쌓아왔다. “아마도 서 원장이 개원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다면 저는 개원 자체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믿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병원을 운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두 원장은 병원의 경영 뿐 아니라 환자들도 분담하여 진료한다. 보다 자신 있는 분야를 서로 맡아가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에도 항상 함께 한다.



“재활의학과 관련 책들을 여러 권 출간했습니다. 후배 의사들에게는 진료에 도움을 주고 환자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환자에게도 진심은 통한다

동문 친구 둘이 뭉쳐 만든 '수'재활의학과 의원은 두 젊은 의사의 진심이 합쳐져 생긴 결과물이다. 의사는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고, 그러면 환자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두 원장의 신념이다.

“처음 병원을 개원할 당시, 그저 주변에 재활의학과의원이 가장 적은 곳, 그리고 역에서 가까운 곳을 찾다보니 이곳 석계역에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환자들에게 진심으로 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지역 환자분들과 함께 정을 나누며 보다 좋은 병원으로 만들어 나가는 중입니다” 환자들에게 진심을 보이면 환자도 의사에게 마음을 연다. 서로 신뢰가 쌓이면 치료 효과도 높다. 서 원장은 “지역 환자분들이 떡도 해 보내주시고 김장김치도 담가서 보내주세요. 이제 지역에서 함께 소통하는 병원이 된 거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두 원장이 병원을 개원하고 환자들에게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쌓아온 많은 경험이 도움이 됐다. “순천향대학병원 구미, 천안, 부천, 서울 전 지역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병원마다 여러 환자들을 경험하고 여러 선배님들과 함께 하면서 의사로서의 많은 공부와 교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후배들의 롤 모델이 되고자 노력할 것

서 원장과 정 원장은 '수'재활의학과의원을 통해 후배들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의사가 되겠다고 설명했다.

“저희 둘과 병원을 보며 후배들이 병원을 개원하고 의사로서 활동할 때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나 의사로서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의료봉사와 기부활동도 틈틈이 하고 있다. 이 또한 의사로서의 역할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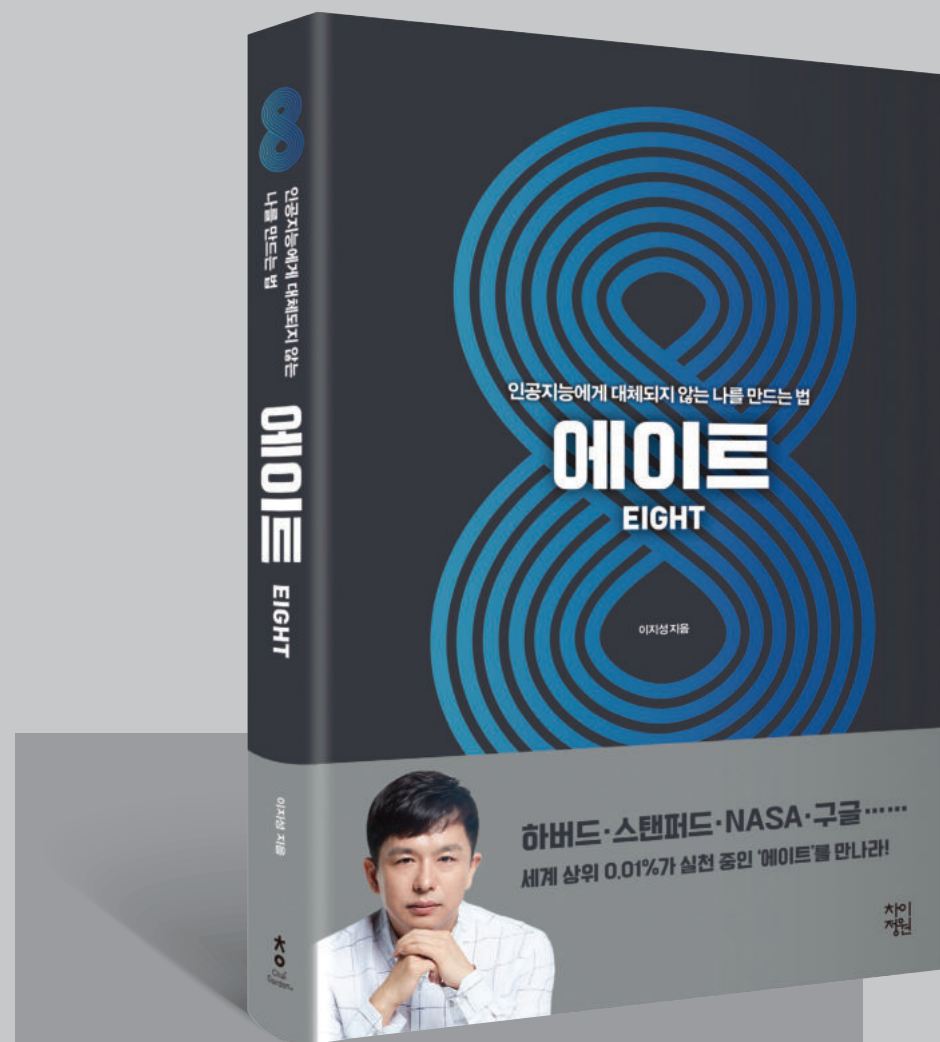
“영등포에 있는 요셉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돌보는 것 역시 의사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병원이 자리를 잡은 만큼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곳에 기부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서 원장과 정 원장은 “함께 해서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면 의사들이 함께 병원을 개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며 “다만 장밋빛 꿈을 꾸기 이전에 의사로서 본인의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병원 개원을 위한 많은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변 지역 최고의 재활의학과의원이 되자며 의기투합한 두 원장의 꿈이 성실히 이어가고 있다. ■

「에이트」

인공지능(AI)시대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인공지능 시대, 지속 가능한 삶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확실하고 강력한 대응법!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시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 무엇과도 대체되지 않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 상위 0.01%가 실천 중인 '에이트'를 제안하는 『에이트』.

이 책은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에서는 실리콘밸리와 하버드의 움직임, 메이지 유신 이후 2차 흑선인 일본의 교육혁명 등을 통해 인공지능이 없으면 무엇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명명백백히 알리고, 2장에서는 실제 인공지능과 사람의 대결을 소개하며 앞으로 10년 뒤에는 우리 자리가 위협당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그리고 대체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받는 게 아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마지막 3장에서 저자는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 곧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임을 역설하며 세계 상위 0.01%가 실천 중인 대응법 '에이트'를 제안한다. '디지털을 차단하라',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 철학하라', '바라보고, 나누고, 융합하라', '나에서 너로, 우리를 보라' 등의 실천 방안을 안내하며 그 무엇과도 대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세계정세는 이미 오래전, 급변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있었다.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기 위해 교육 등 다방면으로 기획해가고 있었다. 우리는 어떨까. 아직 준비도 못한 채, 아니 아무런 경각심도 느끼지 못한 채 '불타는 갑판' 위에 서 있는 현실을 저자는 극도로 안타까워하며, 책의 집필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

10년도 더 된 1997년 6월, 내한한 빌 게이츠가 "인류의 미래 문명은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내가 만일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무엇보다 인공지능을 공부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당시에 우리 중 그 누구도 빌 게이츠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뒤 국가부도사태(IMF)가 터졌다. 이제 한 작가가 1997년의 그처럼

말하고 있다. 부디 자신의 말이 허공 속으로 사라지지 않기를. 부디 나라가 응답하기를.

UN은 우리나라가 국민 평균 독서량이 세계 166위라고 발표했다(2015년). 유발 하라리를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큰 위험에 처하는 국가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까지 읽으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비율 세계 1위 국가가 될 가능성이 심히 높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인공지능으로 인해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심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만일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당신은, 당신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더 끔찍한 사실이 있다. 당신이 여기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세계는 어떨까. 하버드·스탠퍼드·MIT·예일 같은 세계 최고의 대학들은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인공지능 시대의 패배자'를 만드는 강의 위주의 수업 형태를 '인공지능 시대의 승리자'를 만드는 수업 형태로 바꾸는 실험을 조금씩 해왔다. 그리고 2012년 강의의 시대가 종결됐음을 인정하고, 유다시티-에드엑스-코세라 같은 무크 기업을 설립하여 자기 학교 학생들만 들을 수 있었던 강의를 인터넷에 전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책에서 이 같은 파격적인 행보와 사례를 무수히 소개하는 저자는 이제 "강의의 시대는 끝났다"며 강의 위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인공지능의 종이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권말 부록에는 인공지능 시대가 불러올 예측 가능한 미래와 세계의 움직임을 모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 SCH

BioMatrix기술 적용 128채널 MRI 가동

순천향대 서울병원(원장 서유성)이 128채널 최신형 MRI를 도입해 11월 1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 장비는 지멘스사의 MAGNETOM Vida 3T(모델명:마그네툼 비다)로 기존 MRI 장비보다 스캔 속도가 빠르고 이미지 해상도가 우수해 그 동안 판독에 제약이 따랐던 영상도 판독할 수 있다. 특히, 환자의 생체 신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BioMatrix 기술을 적용, 심박수와 호흡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점이 획기적이다. 기존 MRI 검사 시 환자의 호흡을 측정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했지만 마그네툼 비다는 MRI 테이블에 호흡센서를 장착해 환자의 호흡정보를 자동으로 획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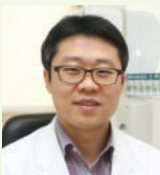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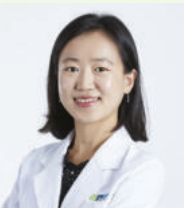


재활의학과 최윤희 교수·이상훈 전공의 우수포스터상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최윤희 교수·이상훈 전공의팀이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47회 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받았다. 최 교수팀의 포스터 연제는 ‘경추전방 수술 후 발생한 비가역적 설하신경 및 삼차신경의 동반손상 증례 보고’로 설하신경과 삼차신경 손상이 동시에 발생한 최초의 증례보고다. 설하신경과 삼차신경 시스템의 손상을 신경전도검사, 침근전도검사, 유발전위검사 등의 신경진단학적 검사로 확인한 것이 특이점이다.

이해경 신장내과 전임의, 우수구연상 수상

이해경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장내과 전임의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열린 2019 당뇨병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이해경 전임의가 발표한 논문은 ‘SGLT2 inhibitor empagliflozin reduces urinary and circulating cell-free mitochondrial DNA copy numbers in type 2 diabetes patients(2형 당뇨 환자에서 SGLT2 억제제로 인한 소변 및 혈액의 비세포성 미토콘드리아 DNA 감소)’이다. 박형규 내분비내과 교수와 권순호 신장내과 교수가 교신저자이다. SGLT2 억제제를 복용하면 당뇨병으로 인한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감소하는 것을 실제 당뇨 환자에서 확인한 연구이다.



윤상철 외과 교수, 우수연제상 및 라이브시연

윤상철 외과 교수가 11월 3일(일) 서울드래곤시티 5층 백두홀에서 열린 제38회 대한정맥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 윤상철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Ultrasound-based topographic analysis of tributary vein connection with the saphenous vein”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혈관 초음파 검사를 바탕으로 지류정맥의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무릎 하방 정맥류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우수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같은 하지정맥류에서 고주파 시술을 정맥류 수술 전문의들을 대표하여 초청연자 자격으로 공개수술(Live Surgery)을 시연했다.



2019 순천향대서울병원 신장내과 연수강좌 개최

신장내과는 9월 19일(목) 오후 2시부터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2019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신장내과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투석환자 진료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당뇨, 심혈관 합병증 및 통증관리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또한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투석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동정맥루를 잘 유지하기 위한 전략, 문제 있는 동정맥루를 고쳐 쓰는 방법 등을 다뤘다. 연수강좌에는 개원의 전문의 전임의 80여명을 비롯해 간호사 및 연구원 등 총170명이 참석했다.



재활의학팀 ‘소아치료실’ 신설

재활의학과 재활치료팀에서는 11월 4일 소아치료실을 신설했다. 소아치료실에서는 선천적 및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해 운동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소아에게 발달단계에 적절한 다양한 자극 및 자세교정, 운동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상 발달에 근접하도록 돕고,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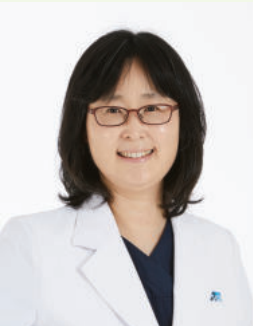


신응진 부천병원장, 제14회 임산부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신응진 부천병원장이 10월 10일 제14회 임산부의 날 기념 정부 표창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임산부의 날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모자보건법에 의거해 매년 10월 10일로 제정됐다. 이날을 전후로 다양한 캠페인과 기념행사가 열린다. 신응진 부천병원장은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정시 퇴근 문화 조성, 직원 고충 관리, 태운 문화 근절 캠페인,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시행 및 배려 캠페인, 출산 및 육아 지원 활성화 등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임신부 건강 증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성신·박가영 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우수 논문상·GSK 우수 초록상 수상

부천병원 김성신·박가영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10월 24일 그랜드 워커히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9년 제69차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과 ‘GSK 우수 초록상’을 각각 수상했다. 김성신 교수는 ‘극소 저출생 체중아에서 출생 초기 비타민 D 농도와 호흡기 질환과의 연관성’, 박가영 교수는 ‘태태연령 25주 미만에 발생하여 지속된 조기 양막 파수 산모로부터 출생한 극소 저출생 체중아의 신생아 결과: 한국 신생아 네트워크’라는 제목으로 극소 저출생 체중아에 관한 연구 결과를 각각 발표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베다니마를 의료봉사로 ‘인간사랑’ 실천

부천병원 의료봉사단과 서울덕우라이온스클럽 60여 명이 10월 19일(토)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베다니마를 드란채·요양원을 찾아 합동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베다니마들은 소외된 이웃, 장애인 등이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주고 교육을 실시하는 노숙인 자활시설이다. 부천병원 의료봉사단은 베다니마들에 거주 중인 행려 장애인과 노인 80여 명을 대상으로 진료 및 혈압·혈당검사, 혈액검사, 복부초음파검사, 물리치료, 수액치료 등을 실시했다. 신응진 부천병원장이 활동 중인 서울덕우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은 기관에 식사를 제공하고 시설 정비를 도왔다. 또, 시설에 의류를 기증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부천병원에 의료후원금 300만원을 기부했다.



항설 서석조 박사 서거 20주년 기념, ‘순천향 의학연구 학술대회 2019’ 성료

순천향대학교 의료산학협력실, 순천향의생명연구원(SIMS),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공동 주최한 ‘순천향 의학연구 학술대회 2019’가 11월 3일 부천병원 항설대강당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이종순 순천향의생명연구원 교수가 ‘제2형 당뇨병 치료 연구’에 대하여, 임수빈 부천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3D 프린팅 보형물을 활용한 척추 질환 치료의 미래’ 등에 대해 발표해 미래 의학에 대한 전망을 밝혔다. 이 외에도 순천향대와 4개 부속 병원 의학연구 관련 주요 교수진이 연자로 나서 기초 의학과 임상 의학이 융합된 중개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또, 유육준 카이스트 명예 교수와 김주환 서울의대 교수 등 유명 석학들의 초청 강연이 진행되어 급변하는 융합 연구에 대한 최신 견해를 나눴다.

SCH NEWS

천안병원



심세훈 · 김지선 · 김신영 · 나주옥 교수 수상

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심세훈, 김지선 교수가 대한우울조울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학술상,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심세훈 교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10여편의 SCI 논문을 발표해 우울증 및 양극성 장애 환자의 조기진단 및 치료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김지선 교수는 ‘조현병 관해의 예후인자로서의 사건유발전위’를 제목으로 한 논문을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영상의학과 김신영 교수가 75회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KCR 2019)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수상 논문은 ‘유방 내 고에코성 종양들의 감별진단에 대한 고찰’이다.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나주옥 교수가 이끄는 충남권 국가결핵관리사업단이 ‘2019년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의 모범적인 수행으로 지역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우수권역 표창을 수상했다.



프로배구경기 단체관람으로 스트레스 홀출

천안병원은 11월 15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프로배구경기 단체관람 이벤트를 진행했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교직원들의 업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마련된 이벤트는 남자프로배구 경기를 단체 관람하는 것. 병원은 경기 관람료 전액을 지원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교직원 200명은 저녁 7시부터 열린 현대캐피탈 인공용고자 88식 수훈, ARARIO, 도드람, Pocari Sweat, K&S 등의 스폰서사들과 함께 관람하며 스트레스를 홀출 날렸다. 천안병원은 교직원들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스포츠경기 관람 외에도 꽃꽂이강습, 요가강습, 단체영화관람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외래진료관 증개축 착수

천안병원이 외래진료관 증개축공사에 착수했다. 진료 및 대기 공간 부족으로 인한 외래환자들의 불편해소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공사는 10월 4일부터 2020년 4월까지 7개월간 이어진다. 증축규모는 총 605.72㎡(184평)로 외래진료관 서쪽 현관 앞 주차공간 13면을 활용해 2~3층 규모로 덧붙이는 형식(사진)으로 진행된다. 증축되면 우선 수납 및 채혈 대기공간이 약 2배 넓어져 환자들의 불편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혼잡을 겪는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호흡기내과 등 여러 진료과도 증개축에 들어가, 공사를 마치면 진료실 및 대기공간이 늘어나 환자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진료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동 및 신설되는 곳도 있다. 본관 1층의 ▲역행성 헤-담관 내시경실(ERCP)이 외래진료관 2층 소화기병센터 안으로 이동되며, 암 등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연관 진료과가 함께 진료하는 ▲다학제통합진료센터(진료실 3실)도 외래진료관 2층에 신설된다.



꽃꽂이 강좌로 감정노동 스트레스 날린다

천안병원이 10월 15일 오후 병원 중강의실에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꽃꽂이 원데이 클래스’를 열었다. 꽃꽂이 강좌는 교직원들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취미 활동도 장려하기 위해 열렸으며, 사전신청을 통해 선정된 교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문 플로리스트가 진행하는 강좌는 실용도 높고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꽃 장식 선물박스 만들기’를 진행했으며, 강의료 및 재료비 등은 병원이 전액 지원했다. 올해 네 번째 열린 ‘꽃꽂이 원데이 클래스’는 11월에도 다른 교직원 20명을 대상으로 한 차례 더 열린다.

구미병원



제8차 뇌신경센터 심포지엄 개최

구미병원은 개원 4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9월 26일 구미 BS호텔 대연회장에서 ‘급성 뇌질환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주제로 제8차 뇌신경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소방서 구급대원들과 협력병·의원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협력기관과의 유대관계 강화 및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심포지엄은 ▲급성기 뇌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강희도 응급의학과 교수) ▲외상성 두부 손상에 대한 최신 지견(이광수 신경외과 교수) ▲뇌출혈에 대한 급성기 치료(김성호 신경외과 교수) ▲급성 뇌경색에 대한 급성기 치료(여동규 신경외과 교수) ▲급성기 뇌질환의 재활(황성일 재활의학과 교수)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 또한 연수강좌와 질의응답을 통해 급성뇌질환 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처치에 대해 폭 넓은 경험과 식견을 공유하는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뇌신경센터 김성호 교수는 “앞으로도 협력기관과의 적극적인 진료협력과 긴밀한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 지역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제16회 QI경진대회 개최

구미병원은 지난 10월 24일 본원 향설교육관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제16회 QI(Quality Improvement)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임한혁 병원장, 양승부 기획실장, 전영준 QI실장 등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연발표 7팀, 포스터발표 7팀 등 총 14개 팀이 참여해 부서별 질 향상 활동사례를 발표했다. 심사결과 재활치료실에서 발표한 ‘대기시간 단축을 통한 고객만족 증가’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에는 감염관리실과 중환자실이 발표한 ‘원내 다제내성균 발생 건수 감소활동 CQ’가 선정되었고 31,52,61,62명 등이 합력해 발표한 ‘간호사 인수인계 단축방안’이 우수상을 차지하였다. QI 경진대회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 병원 내 의료질 향상 활동을 활성화하고 부서별로 진행한 의료질 향상 활동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외국인 의료봉사를 통한 인간사랑 실천

구미병원은 지난 10월 20일(일) 금오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6회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구미시 주관으로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중국 등 총 11개국의 외국인근로자와, 장세용 구미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명랑운동회, 전통춤연, 한국노래경연대회와 함께 나라별 문화체험 부스도 운영돼 각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구미병원 외국인 의료봉사단은 이날 참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상담 및 진료를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구미병원 외국인 의료봉사단은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마하뽏다센터에서 경제, 시간적 어려움으로 몸이 아파도 진료를 받기 어려운 구미지역의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상담 및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립이념인 인간 사랑을 실천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건소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1회 구미시 의료기관종사자 체육대회 종합우승

구미병원은 지난 10월 27일 에스 구미 스포츠 파크에서 개최된 ‘제1회 구미시 의료기관 종사자 체육대회’에서 축구, 400미터 화합계주, 여자 줄다리기 3개 종목에서 1위를 기록하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구미시 병의원 원무행정 책임자 및 사무장들의 모임인 구미시 원무회 주관으로 구미시민의 의료복지를 책임지는 의료인들의 헌신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순천향대 구미병원을 비롯하여 구미차병원, 구미강동병원 등 200여명의 선수·임원들이 참가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경기는 장세용 구미시장의 축하 및 격려를 시작으로 8개의 팀이 축구, 400미터 화합계주, 줄다리기 등 다양하고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진행됐으며, 체육활동을 통해 회원 간 단합과 친목을 도모할 수 계기가 되었다.



향설 서석조 박사 기념 사업회 장학증서 수여

재단법인 향설 서석조박사 기념사업회(이사장 박희숙)는 9월 18일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CEO강의실에서 2019학년도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순천향의 설립이념인 인간사랑 정신을 전했다. 장학증서 수여식은 박희숙 이사장의 인사말과 장학증서 수여, 장학생의 감사편지 낭독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15명의 학생에게 총6,673만원의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학교별로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 및 간호대 6명, 기타 단과대 7명, 가톨릭대학교 의과대 1명, 연세대학교 의과대 1명이다.

장학증서를 받게 된 김호성(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은 “그동안 부모님의 부담을 줄여 드리고자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바빠지는 학과일정으로 인하여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장학금을 받게 됨으로써 현실적인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런 크고 감사한 도움을 받은 만큼, 정말 책임감 있게 의사의 길을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여식 행사에는 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고 있는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총장, 황경호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서유성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 등이 참석해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설립자인 향설 서석조 박사의 인술과 이념을 계승하기 위해 2001년에 설립한 기념사업회는 장학사업과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펼쳐 올해까지 총633명의 학생에게 약16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순천향 의생명연구원, 국제공동심포지엄 개최

순천향대(총장 서교일)는 11월 7일 충남 천안시 두정동 신라스테이에서 순천향의생명연구원과 단국대 공동주관으로 제1회 충남 해외우수연구기관 공동중개재생의학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충남도가 후원하는 해외우수연구기관 3개 센터인 △와이즈만-순천향 조직재생 연구센터 △한국베크만광의료기기연구센터 △UCL 이스트만-코리아 덴탈메디슨 혁신센터가 참여했다. 베트남 국립 후에 의학대학교 및 미국의 베크만광의료기기연구센터,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 영국 이스트만 치의학연구소 등 총 4개국 국가 연구센터 6명의 과학자와 순천향의생명연구원과 단국대 석·박사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개재생의학’ 분야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순천향대, 충남 청년 잡다한(Job多) 페스티벌 개최

순천향대학교는 지난 11월 7일 오후 실내 체육관에서 ‘2019 충남 청년 잡다한(Job多) 페스티벌’을 개최해 대학생 구직 예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 충남도가 주최하고 충남경제진흥원과 순천향대가 공동 주관해 열린 취업페스티벌로 총 6개관 87개 부스에 도내 우수기업 5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대학생 청년 구직자 20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ICT융합 스마트재활산업’ 인력 양성

순천향대학교(총장 서교일) ICT융합재활공학연구센터가 10월 26일 교내에서 ‘2019년 재활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기업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2020년 ICT 융합 스마트 재활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이해를 높이고 재활산업발전 및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16개 참여기업과 협약(MOU)도 했다. 순천향대가 추진해 온 ‘ICT 융합 스마트재활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산학 컨소시엄 공동교육 및 산학 공동기술 개발을 통한 현장 실무형 인력양성을 목표로 국립재활원, 이화 피닉스병원 등 51개사가 현장실습과 산학융합프로젝트에 참여해 왔다. 이밖에 (주)비트컴퓨터, (주)휴테크코리아 등 6개 기업이 순천향대 대학원생과 지도교수가 참여하는 산학협력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제1회 피닉스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성료

순천향대학교가 지난 5일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제1회 피닉스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에서는 홍나단(빅데이터공학과 3학년), 윤준영(빅데이터공학과 1학년), 김유나(한국문화콘텐츠학과 3학년) 학생이 한 팀을 이룬 ‘DAWN팀’의 ‘동영상 비속어 필터링 서비스’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서비스는 동영상에서의 비속어 구간을 잡아 해당 비속어는 비프음 처리한 후 사용자에게 비프음 처리된 클린 영상을 제공한다. 영상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건전 콘텐츠 및 욕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다.



제2차 정기이사회 동문화합대회 중간보고

순천향의대동창회는 9월 28일 서울역 티원에서 2019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9동문화합대회 준비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와 2020순천향의대홈커밍데이 행사, 제3차 정기이사회 및 송년회 일정 등을 논의 했다.



2019 순천향의대동창회 동문화합대회 성료

순천향의대동창회는 10월 27일(일) 천안아산 아름다운CC에서 ‘2019 순천향의대 동문화합대회’를 개최했다. 조영덕 동문화합장을 비롯한 많은 동문들과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총장 등 내외빈 160여명이 참석해 동문간 화합과 우의를 다졌다.

따스한 인술, 희망의 인재 후원

향설서석조박사기념사업회

재단법인 향설 서석조 박사 기념사업회는 순천향대학교 설립자인 고(故) 향설 서석조 박사의 인술에 대한 열정과 교육적 이념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장학사업과 학술연구지원사업 그리고 의료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석조 박사의 숭고한 인간사랑과 교육적 이념을 받들어 국가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선생의 유덕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 뜻 있는 여러분과 향설서석조박사기념사업회, 순천향대학교, 순천향중앙의료원을 사랑하시는 모든 교직원 및 가족, 동문, 학부형, 기업체, 기타 단체 누구나 후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 납입안내

기부계좌 기업은행 926-000236-04-015
(예금주 : 재단법인 향설서석조박사기념사업회)

문의 (재)향설서석조박사기념사업회 사무국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 59(한남동 657) 순천향대학병원 내
전화 : 02-709-9105

“나보다 남을 위하여...”

인간사랑의 교육철학을 실천한 고(故) 향설 서석조(徐錫助) 박사.

